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유난히 심한 보스톤 '층간소음' 해결 이렇게

가해 이웃에게 서면으로 피해 사실 알려야  
밤 11시 이후 소음은 소란 및 방해 죄  
경찰 신고 및 법정 소송은 마지막 선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한인 H씨는 밤이면 잠을 쉽게 청할 수가 없었다. 뒷집에서 틀어놓은 구식 선풍기의 진동음이 베게를 베고 누우면 신경을 거슬렸기 때문이다. 올스톤에 거주하는 한인 Y씨 또한 층간소음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새로 이사온 학생이 밤이 되면 드림을 쳤던 것, 그나마 위안은 드림 실력이 좋아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보스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집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바로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일부 한인들은 정확한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언어 장벽으로 그냥 힘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립 보건원은 자체 보도 자료(ehp.niehs.nih.gov)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층간소음 피해시, 이웃에게 편지로 피해사실을 먼저 알리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한 문제가 정신적 고통에서 신체적인 고통으로 전환돼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는 한인들은 즉각 제대로 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스톤 경찰청 존슨 공안 경찰관은 가장 먼저 가해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을 권장했다.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편지 등 문서를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편지는 쓸 때 깊게 생각하게 쓰고 또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위해 증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에 관해 이웃에게 통보받지 않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 8일 칼라일(Carlisle, MA)에서 옆집 닭 소음에 견디지 못해 키우는 닭 11마리를 독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닭을 독살한 프랭크 씨는 경찰에게 신고하고 지역 신문에 편지도 보내 보았으나 단 한번도 피

▶▶2면으로 계속

## 창업경연 매스챌린지 최초 한국우승팀 나오나

온누리 DMC, 한국 최초 모바일 광고기술 개발  
한국 유일 결승팀에 미 모바일 광고사 '주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가 주최하는 창업 경연대회인 매스챌린지의 유일한 한국 결승 진출팀인 온누리 DMC(대표 김태은)가 최초의 우승을 노리고 보스톤에 입성했다.

지난 6일, 매스챌린지 결승 진출 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4개월간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보스톤에 입국한 윤거성 온누리 DMC 이사는 매스챌린지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DMC는 핸드폰을 통해 관심있게 본 상품을 앱 광고로 노출시켜주는 기술을 선보이며 당당히 매스챌린지 결승 진출을 거머쥐었다.

윤거성 이사(32)는 지난 14일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우승을 따내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매스챌린지에 참가한 실질적인 목표는 미국 시장 진출에 있으며, 단순히 멘토링을 받거나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esung.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970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거 특가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보충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일과, 항공사, 식사, 숙박, 렌탈 차량, 보험, 기타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블록버스터 상점 옆 LACE TRAVEL  
예약문의 전화: 617-424-8956 (24/7)  
이메일: info@lace-korea.com    홈페이지: www.l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lacekorea  
▶▶2면으로 계속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a@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소음 피해 당하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해야 대처 가능

▶▶1면에 이어서

해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는 17년간 제직했던 소방관직을 정직당하고 체포돼 법정에서 수모를 당했다.

이웃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 되지 않는 경우 엔 아파트나 콘도인 경우에는 경비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건물주에게 이 문제를 또한 서신으로 알리는 2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스톤 경찰국 존슨 공안 경찰관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소음 피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의 소음규제법은(조항 310 CMR 7.10) 매사추세츠 주의 타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대부분의 도시들의 소음규제 시간은 평균 오후 11시이다. 이웃들과 주민들에게 아무 통보 없이 부당한 소음을 통해 동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란 및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와 더불어 법정에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미국 민법에 의하면 증간소음으로 인한 방해는 소액 사건 소송(Small claim)이 가능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최대 7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액 사건 소송을 시작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 소송신청서를 받아 소송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리 60일의 통보 편지를 보낸 후 법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낸 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 매스챌린지 우승 통해 미국 모바일 광고 시장 진출 노려

▶▶1면에 이어서

그러나 미국의 광고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달라 한국 스타트업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온누리 DMC가 시장 진출에 앞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엔지니어로 이번 매스챌린지를 통해 미국내 멘토나 파트너,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온누리 DMC에 대한 매스챌린지 멘토들의 반응은 뜨겁지만 하다. '멘토가 되어달라'는 말보다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는 온누리 DMC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광고회사인 밀레니엄 미디어(Millennium Media)와 시애틀에 본사를 둔 튠(Tune)과 계약을 체결, 기술 연동까지 진행 중에 있다.

김종성 KIC 센터장은 온누리 DMC에 대해 "처음부터 조짐이 보였다. 워낙 경험이 풍부한 팀이라 그런지 피칭(사업계획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하다"며 극찬을 늘어놓았다. 김 센터장은 지난 3개월간 총 16개 한국 팀들이 매스챌린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봐온 장본인으로 온누리 DMC의 행보에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온누리 DMC의 연구소는 사우스 보스톤 매스챌린지 본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팀으로는 윤거성 이사와 보스톤 대학 출신 염승현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 김태은 온



사우스 보스톤에 위치한 매스챌린지 본부에서, 왼쪽부터 김종성 KIC 센터장, 윤거성 온누리 DMC 이사, 염승현 매니저

누리 DMC 대표가 추후 합류할 예정이다.

온누리 DMC의 핵심 기술은 크로스타겟(CrossTarget)으로 사용자가 관심있게 본 상품을 광고로 노출시키는 PC상의 리타겟팅(Retargeting)을 휴대폰으로 옮긴 것으로 한국 최초로 웹과 앱을 호환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크로스타겟 기술은 기존의 모바일 광고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 분석 기술을 통해 모바일 유저에게 '스팸'이 아닌 실속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들은 크로스타겟을 통해 휴대폰 사용자들의 광고 클릭율과 구매율을 리타겟팅 되지 않은 광고에 비해 평균 3배, 최대 5배

까지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독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온누리 DMC는 한국에서는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로 지난해 6억원의 매출을 내며 20억원 투자를 받는 등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2015 매스챌린지에는 전세계 총 2500여개 스타트업이 도전했으며 지난 5월 20일 온누리 DMC를 포함한 단 128개 팀만이 결승에 진출했다. 4개월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거쳐 오는 10월 선정되는 26개 최종 우승 팀에게는 175만 달러 상금과 1000만 달러 투자유치가 지원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에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에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확실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처리기간 대폭 빨라진다



지난 2014년 워크샵에서 진지한 얼굴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한인들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설  
3~4일만에 처리 가능해져**

신청서를 1,600여개 시(구), 읍, 면으로 송부 및 처리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까지 소요되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앞으로 한인들은 보스톤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3~4일만에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이창우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로 인해 (관련 접수를) 전문적으로 처리,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며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 드린다” 는 말을 전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 신청을 위해 보스톤 총영사관에 직접 찾아가갈 경우 전자적 송부를 통해 단 \$1.50정도의 비용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3~4만원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처리 속도 단축과 더불어 비용까지 대폭 절감돼 한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전자적 송부를 통한 접수 외에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신고서류에 필수적 기재사항 및 필요한 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해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총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같은 편의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모든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로 보내 일괄처리가 가능해진 덕이다. 기존에 각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한인들도 직접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 시민권 취득 위한 무료 워크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오는 8월 8일 토요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 22회 무료 워크샵을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한다.

(\$85) 총 \$680의 개인수표 혹은 머니오더(Payable to 'USCIS'), 미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가져와야 한다.

워크샵에서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모든 참석자들의 신청서(N-400) 작성, 사진촬영, 복사 등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돕고, 한인 변호사들이 각 신청서 기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무료 서명을 해준다. N-400 신청서는 기재 사항이 많아 당일에 작성할 경우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기입해 가져갈 것을 권장한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N-400)과 설명서는 www.uscis.gov 에서 'Immigration Forms' 을 클릭하고 'forms and fees' 를 선택한 후 화면아래로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영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595)와 지문 채취료

지원 자격에 관한 개인별 특별문의(예: 불법체류 사면자, 전과자 등)는 이경해 시민협회장(508-962-2689) 또는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PM ~ 4PM  
장소: 보스톤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aturday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 SAT Plus Summer Schedule

July 6 - July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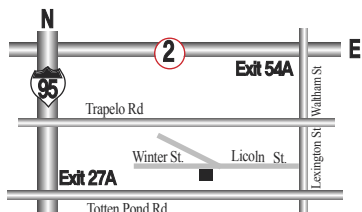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아시안 위협하는 B형 간염' 기자회견 개최

사전 감염여부 진단 통한 예방 강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지역 아시안 이민 언론사를 대상으로 개최된 'B형 간염 예방' 기자회견이 지난 16일 보스톤 소재 리버 호텔에서 개최됐다.

바이오 제약사인 길리아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가 주관한 이날 행사의 패널로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인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의 전문 의사와 각종 전문가, 하버드 학생단체 대표 등 총 6명이 참석해 아시안 아메리칸을 위협하는 만성 B형 간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환영사를 전한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의 롱 관(Rong Guan) 위장병학 전문 의사는 "참석해준 아시안 언론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B형 간염 예방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스 이스라엘의 달린 라우(Daryl In) 위장병학 전문의사는 "미국인 중 2백만이 B형 간염 보균자로 이 중 절반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며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 '소리 없는 병' 으로 알려진 B형 간염은 특징적인 증상이나 고통이 없어 감염자가 건강에 문제



지난 16일 목요일 보스톤 소재 리버 호텔에서 개최된 B형 간염 예방 기자회견 후 전문의 및 하버드 학생단체로 구성된 총 6명의 패널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간암을 비롯한 각종 염증, 경화 등을 유발해 사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B형 간염협회의 창설자인 레슬리 오(Leslie Oh)는 만성 B형 간염으로 모친과 남동생을 잃은 경험을 나누며 "(B형 간염은) 완치는 아니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감염여부 진단을 꼭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외에도 메타 헬스 센터의 찬 투치(Chhan Touch) 의사와 하버드 B형간염 학 생활동맹(HBV)이 참석해 B형 간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전했다.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를 비롯해 보스톤 지역 중국 언론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 보스톤 산악회 제12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한정원)가 오는 25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워싱턴(Mt. Washington, 6288피트)로 12차 정기산행을 간다.

이날 산행은 A,B,C조로 나뉘며 B와 C조는 마운트 워싱턴의 중간 도착장소인 마운트 몬로(Mt.Monroe, 5372피트)와 레이크 오브 크라우드 헛(Lake of Clouds Hut, 5012피트)으로 산행이 예정되어 있다.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A,B,C조가 각각 5.44로 평소보다 비교적 도전적인 산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행 소요시간은 약 6시간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및 간편 중식이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6시 45분에 하면 된다. 운전 거리가 멀고 트레일이 길어 출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인 23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조(A, B, C)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869-5157로 하면 되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잎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주요 목회자 인터뷰 - 폴 김 안디옥침례교회 원로목사

#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6월 25일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호 인터뷰한 동성애자 목회자인 존 클라크 세인트폴 성공회교회 담임목사에 이어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를 대표하는 폴 김 안디옥침례교회 원로목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0일 금요일, 김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존 클라크 세인트폴 성공회교회 담임목사와는 대조적인 견해를 펼쳤다. 김 목사는 이번 합헌 판결이 일부다처제 등의 결혼 방식을 허용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1년 안디옥침례교회를 개척한 폴 김 목사는 대표적인 한인교회로써의 입지를 굳혔으며 2011년 원로목사로 추대돼 현재 뉴잉글랜드 남침례 컨벤션(New England Baptist Convention)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다음은 폴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1620년도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믿음으로 세운 이 땅이 하나님과 성경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살다보니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로 변해버렸다. 완전히 뒤

가 뒀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재촉하는 사건으로써 각성 운동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혼에 대한 ‘평등’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물 속 물고기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땅에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모든 생물은 처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하며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성경이 이미 정의한 결혼을 다시 정의하려 한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다시 정의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체 결혼이나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마서 1장에 나와있다. 순리를 거스르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저마다의 목적을 갖는다. 목적대로 살아야 비로소 행복한 것이다.

**일부는 동성애자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도 안 된다. 1977년부터 병원의 원목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담당해왔으며 실제로 주변에 이성애자로 돌아온 동성애자



폴 김 안디옥침례교회 원로목사

들이 많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고집이며 착각이자 야망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엄연한 죄의 문제다.

**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죄라고 지적하면 갈등이 생긴다. 무엇보다 우린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나 나무랄 수 없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마다 인식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물론 교단에 따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다. 하지만 남침례 교단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해) 아주 클리어하게 ‘No’ 이다.

**이미 합헌이 된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으로 이 사회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평신도도 복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엘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엘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농치면 후회할 보스톤 썸머 페스티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보스톤의 여름이 한창이다.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 걸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썸머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 친구들과 보스톤의 여름을 마음껏 즐겨보자.

## ▶ "Outside the Box" 아트 퍼포먼스 페스티벌

무료 아트 퍼포먼스 페스티벌 "Outside the Box" 가 지난 7월 14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계속된다. 약 6일동안 100여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며 연극, 클래식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연, 댄스, 인디밴드까지 모든 연령과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열리고 있는 장소는 Boston Common 주변에 설치된 다섯개의 무대이며, 낮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로 다른 공연들이 각 무대에 올려진다.

특히, 7월 17일은 컨트리 음악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그래미 어워드 2014'의 컨트리송 베스트 앨범상을 수상한 가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Kacey Musgraves)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17일 저녁 6시 30분). 또한 보스톤 출신의 다재다능한 4인조 Indie Rock밴드 Guster(18일 저녁 7시 30분), 보스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Shea Rose의 공연은 (19일 저녁 5시 30분) 놓치기 아까운 무대들이다. 더 자세한 공연 일정은 <http://otbboston.com/site/>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하며, 돛자리, 도시락이나 간단한 스낵, 썸크림도 잊지 말고 챙겨 가도록 하자. 단, 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혹시나 간식거리를 잊었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출출한 배를 행복하게 채워줄 푸드 트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 ▶ 한여름 밤에 즐기는 무료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 "Shakespeare on the common"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Shakespeare on the common"은 매 여름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한 작품을 선택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올해는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리어왕 (King Lear)이 공연될 예정. 매 1회 무료 공연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일요일은 저녁 7시에 시작된다. 단, 8월 8일 공연은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월요일은 공연이 없다.

장소는 보스톤 커먼에 설치된 무대이며,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는 공연 시작 2-3시간 전에도

착하는 것이 좋다. 개별적으로 돛자리를 챙겨가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좌석을 예약할 수도 있다. 단,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com-mshake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7월 30일부터 8월 7일 공연 기간에는 동무대에서 New England Conservatory 학생들의 무료 재즈 콘서트가 연극 시작 전 열릴 예정이니, "재즈듣고 연극보는" 멋진 여름밤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 하다. 무료 재즈 콘서트는 매 연극 시작 90분 전부터 시작되며, 약 40분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 ▶ Boston Summer Art Weekend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Copley Square에서 무료 Boston Summer Art Weekend 행사가 열린다. 첫날 일정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26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스텝 댄스, 아카펠라 그리고 클래식 공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1976년 이래로 그래미상을 열세번이나 수상한 컨트리 가수 에밀루 해리스 (Emmylou Harris)의 무대가 25일 저녁 9시 45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6일 오후 4시 45분에는 팝과 재즈에서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론 네빌 (Aaron Neville)의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역시나 돛자리나 간단한 먹거리 등은 챙겨갈 것을 권한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http://www.boston.com/sponsored/extra/summerartsweekend/schedule>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j@bostonkorea.com](mailto:htj@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http://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올바른 선글라스 선택법, 눈건강과 멋 함께 챙기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패션의 완성을 더하는 선글라스가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패션보다 실질적인 눈건강을 위해 선글라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선글라스 선택법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색이 진할수록 좋다?

선글라스에 대해 갖기 쉬운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렌즈의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이 많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색만 진한 선글라스는 오히려 눈건강을 해진다. 이는 색이 진한 렌즈로 인해 더욱 확장된 동공으로 자외선이 더 많이 입사되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선글라스 구매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렌즈의 농도는 70~80%가 가장 좋다. 이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눈이 들어다 보이는 정도에 해당한다.

한 가지 유용한 팁은 렌즈를 형광등 불빛에 비쳤을 때 불빛이 여러 색갈로 보인다면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는 제품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기능이 없는 렌즈는 불빛이 흰색으로만 보인다.

### 색상에 따라 다른 기능

여름철 가장 애용되는 회색 렌즈는 빛의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 차단시켜 사물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눈부심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어떤 날씨나 활동에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다.

갈색은 청색 빛을 잘 여과시켜 시야를 넓고 선명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회색에 비해 시각이 밝게 보여 테니스, 골프, 낚시 등의 스포츠나 운전시에 적합하다.

한편, 녹색 계열의 렌즈는 장파장의 광선을 흡수, 차단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므로 착용시 시원하고 편안

한 느낌을 준다. 노란색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색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 선글라스 도수

시력이 나빠 도수를 맞춘 선글라스를 구매해야 하는 사람은 아이 클리닉에서 시력검사를 통해 선글라스를 맞추거나 유효한 검안표가 있다면 선글라스 헛(Sunglass Hut)이나 각종 브랜드 매장에서 주문할 수도 있다.

프레임스 다이렉트 (Framesdirect.com) 등의 웹사이트에서는 \$100 선부터 시작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프레임 별도)에 온라인 주문할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아 직접 매장에 가서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렌즈크래프트스(LensCrafters)에서는 도수 있는 선글라스 렌즈를 \$180부터 판매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 영화 티켓 가격, 최저임금 보다 훨씬 비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최근 영화 가격이 대부분 13불 내외로 대폭 상승, 한 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선 1인당 20달러 가까이 지불해야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영화관 AMC와 Regal Cinema 경우 만 13세 이상의 입장료로 현재 AMC(\$13.69)이며 Regal Cinema(\$12.75)이다. IMAX로 관람할 경우 입장료는 더욱 높아져 AMC(\$19.69)와 Regal Cinema(\$17.75)로 평균 \$5 정도 비싸다. 가볍게 보는 영화 비용 또한 부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한인 양씨는 "가족 넷이서 영화관을 가면 \$100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1명당 20달러 가까이 돈을 내고 보기에는 많이 부담된다"고 말을 덧붙였다.

럭셔리 영화관은 훨씬 비용이 높다. 체스트넛힐의 슈퍼 렉스와 데드햄의 디럭스라이트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고급적인 시설과 음식 및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1인당 입장료 28불을 받고 있다. 슈퍼렉스와 디럭스라이트의 경우 만 21살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어른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박스오피스의 연 티켓 평균차트에 의하면 2010년대 영화 가격은 \$7.89이었다. 그러나 이 티켓 가격은 특별 할인 시간대, 어린이 입장, 고령자, 군인 할인을 모두 합한 평균 가격이므로 실제적인 평균



티켓은 10달러 안팎이었다.

가격이 오른 영화 티켓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AMC 영화관의 경우 주말에는 정오 12시 이전 상영하는 오전 영화 티켓은 \$6 달러에 예매를 할 수 있어 오후 시간의 절반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목요일은 학생할인을 하고 있어서 학생 신분증을 보여 주면 \$8.75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boston.com/ae/movies/packages)에서 각 영화관의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군인 할인과 고령자 할인 역시 적용될 수 있는 영화관들도 여러 군데 있다.

또한 코스트코(COSTCO)에서는 AMC나 Regal Cinema, 쇼케이스 시네마 영화관의 티켓 두 장을 \$16에서 \$17달러로 구입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관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코스트코 홈페이지(Costco.com)에서 10명 티켓을 \$84.99에 구입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보스톤 퍼블릭 마켓 7월말 오픈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연 중 내내 운영될 Indoor 파머스 마켓이 오는 7월 30일 100 Hanover Street에 오픈한다. MBTA Haymarket역에서 바로 연결되며, 약 28,000ft<sup>2</sup> (787평) 규모이다. 보스톤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일년 내내 운영되는 Indoor 시장은 퀸시마켓 이후로는 최초이며, 오직 뉴잉글랜드에서 생산된 로컬 식재료나 상품만 직거래 형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100% 로컬에서 재배 혹은 생산된 상품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파머스 마켓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건강한 로컬 식재료를 제공하는 물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 워크샵 및 크리에이티브 쿠킹, 전통 지역 요리 등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흥미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를 위해 약 3,200 ft<sup>2</sup> (90평)의 공간을 위한 키친이나 classroom으로 꾸며진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이르는 1차 식재료 뿐만 아니라, 아티잔 베이커리, 치즈, 유제품, 맥주, 잼 등 다양한 뉴잉글랜드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판매자들이 선정되었다. 또한 Union Square Donuts이나, Q's Nuts 등 특색있는 vendor 들도 눈에 띈다. 간단한 테이크 아웃 점심 메뉴도 판매된다.

영업시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325대 주차 공간이 갖춰져 있다. 현재 매주 금, 토요일(크리스마스/새해는 제외) 열리고 있는 outdoor 재래시장 Haymarket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뉴잉글랜드의 풍부한 자연이 선사하는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와 음식 문화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htj@bostonkorea.com

## 트랜스 지방, 0.1g도 양돼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가공 식품 제조 공정에서 트랜스 지방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식품 업체들은 향후 2018년 6월까지 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FDA는 트랜스 지방을 '식품첨가제(food additives)'로 재분류하고 FDA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상태의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상태로 만든 것이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을 들 수 있다. 비용면에서 저렴한데, 바삭한 식감과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빵이나 과자류, 치킨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버터 같은 포화지방보다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데 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의 혈중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의 혈중수치는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를 유발한다.

즉, 건강을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의 전면 사용 중지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있다. 2018년까지는 여전히 트랜스 지방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상에는 트랜스 지방이 0g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라벨 표시시 반올림이 허용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0.4g까지는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을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재료성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자

식품 구매 시,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성분(Ingredi-



ents) 까지 읽어 보는 것이다. 만약 "partially hydrogenated oils" (또는, "partially hydrogenated cottonseed oil", "partially hydrogenated palm oil", "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 "partially hydrogenated canola oil") 같은 성분이 표기되어 있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Bready, Creamy, Crunchy 를 조심하자.

Bready - 곱이 바삭하게 구워진 파이, 팬케이크 믹스, 와플 믹스, 냉장도우, 냉동 피자 등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 식품, Creamy- 커피 크림(Coffee creamer), 유제품 아이스크림, 케장식에 사용되는 크림 아이싱(Cream icing), Crunchy- 바삭함이 살아있는 냉동 튀김 가공식품(감자 튀김), 전자렌지용 팝콘, 쿠키 등에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 우리 가족 먹거리는 직접 요리하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가능하다면 가공이 최소로 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하는 것이다. 또한, 튀기는 조리법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조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htj@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로드아일랜드 호텔 2곳 세계 최고 호텔 20위권에

트레블 플러스 레저 선정 최고급 호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에 위치한 호텔 채플러 옛 클럽 워크(Chanler at Cliff Walk)와 워치힐에 위치한 오션 하우스(Ocean House)가 세계 최고 호텔 18위와 19위에 각각 선정됐다.

여행 잡지인 트레블+레이저 (Travel + Leisure)가 선정한 2015 세계 최고 호텔 100선 중 위의 두 호텔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들었다. 잡지의 구독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세계 최고 호텔 100선 1위는 인도의 호수 도시에 소재한 The Oberoi Udaivilas였다. 그 뒤는 이탈리아의 Hotel Castello di Casole—a Timbers Resort가, 3위는 아일랜드의 784년된 돌담 성으로 이뤄진 애쉬포드 캐슬(Ashford Castle)이 각각 선정됐다.

로드아일랜드 소재 오션 하우스는 트레블플러스 레저에서 오랫동안 미국내 최고급 호텔로 선정되어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5위 및 미국내 1위 호텔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세계 10위 그리고 2012년에는 세계 4위에 올랐던 고급 호텔의 대명사였다.



2위에 선정된 이탈리아 소재 Hotel Castello di Casole



세계 3위에 선정된 아일랜드 소재 애쉬포드 캐슬 호텔

오션하우스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시도해본 결과 대부분의 7,8월 예약은 평일인 경우 최소 2일, 주말인 경우 최소 3-4일을 숙박해야만 했다. 평일 최소 숙박요금은 1박당 \$3750이었으며 각종 부대 요금을 합해 2일 합계 \$8782.32이었다.

반면 올해 순위 한계단 위인 채플러 옛 클럽 워크



로드아일랜드 워치힐 소재 오션 하우스

크 호텔은 평일의 경우 1박이 가능했으며 1일 최소 요금은 \$779이었다. 한편 부킹닷컴의 경우 요금은 1퀸베드룸의 경우 \$669이었다.

한편 트레블앤레저가 선정한 세계 100대 호텔 중 더 펜인슐라(The Peninsula) 호텔은 상하이(8), 방콕(22), 홍콩(35), 도쿄(39), 베이징(71), 베버리 힐스(CA, 76) 소재의 호텔이 100위권 안에 들어 최고급 호텔 브랜드로 떠올랐다.

이웃 도시 뉴욕시외의 경우 St. Regis와



오션 하우스 1박 요금

Michelangelo Hotel이 100위권에 올랐다.

hsb@bostonkorea.com



트레블+레이저 잡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급 호텔 리스트에서 18위에 오른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소재 채플러 옛 클럽 워크 호텔



세계 1위에 선정된 인도의 호수 도시의 호텔 The Oberoi Udaivilas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안동 5년차, 외근보통 취급 / 명저산 주사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corn.com

**“광신외 환한 미소가 마뽀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r.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의회서 불체자 대학생 등록금 논의 중

민주당, 주내 등록금과 재정보조 허용해야  
공화당은 주내 등록금은 미국 시민에게만

(플레인필드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대학생이 매사추세츠 주민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5일 공청회를 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대학생이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을 내야 하는지 주의 등록금(out-of-state tuition)을 내야 하는지는 10년이 넘게 논의 중인 안건이다. 보통 주내 등록금은 주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고등 교육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6개 법안에 모두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등록금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불법체류자 대학생에게도 주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우호적인 민주당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지원 수준에서는 의원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고 주 정부의 재정보조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내 등록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주내 등록금은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시절에는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주립 대학에서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려 했으나 법제화 하는데 실패했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시절인 2004년에도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낮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롬니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 중인 불법체류자 대학생들

이민 단체에서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매사추세츠 주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 혜택을 주는 문제는 각 주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 등의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불법체류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리나 같은 주에서는 불법체류자는 공립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최소 18개 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내 등록금을 허용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에는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눈 더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 지난 겨울 보스톤에 쌓인 눈마침내 다 녹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겨울 악몽과도 같았던 폭설로 보스톤에 생긴 눈산이 한여름이 되어서야 모두 녹아 사라졌다. 마틴 윌시 보스톤 시장은 지난 14일, 보스톤 여기저기에 쌓여 있던 눈더미가 모두 녹아 사라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보스톤에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110인치 이상의 눈이 쌓였다. 보스톤 시에는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눈 탑이 생겨났고, 높이 75피트 이상의 거대한 눈 탑도 있었다.

보스톤 시에 남아 있던 눈더미는 사실상 쓰레기 더미와 다를 없었다. 겨울 동안 보스톤 시민들이 거리에 내다버린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치울 때 쓰레기가 함께 산처럼 쌓

였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어 기온이 90도가 가까이 올라가면서 눈이 녹아 내리자 눈산은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보스톤 시내에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가 80톤 이상이었던 셈이다. 눈과 쓰레기가 섞여 홍물스럽게 변한 정체불명의 더미들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어도 남아 있었다. 윌시 시장은 보스톤에서 눈더미가 언제 완전히 녹아 내릴지 알아 맞추는 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스톤에서 눈이 완전히 녹아 내린 것을 축하하기 위해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트위터에 “우리의 악몽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말을 남겼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인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억회복, 면역력 증진, 양노 인비중 예방, 간헐산상 기능 개선
-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5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이란 핵합의, 미 의회 힘로 예상 불구 통과 전망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이란 핵합의가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의회가 새로운 이란 핵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의회가 기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이란 핵합의의 이행을 막는 어떠한 법안이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제적의 2/3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란 핵합의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외교적 성과라고 칭찬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우 민주당 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14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15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이란과의 핵협상을 지지한다는 공동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펠로우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타결로 외교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펠로우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협상을 이끌어낸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

한다"며 의회가 이란 핵합의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상원정보위원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도 이란 핵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우리 나라의 안보 니즈를 충족할 강력한 합의"라면서 이란 핵합의가 "시험 기간을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kirimi99@news1.kr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케리 미국 국무장관

## <이란 핵타결> 케리·자리프, 노벨상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 울 기자 = 13년만에 이란 핵협상 타결을 이끈 주역인 존 케리(72) 미국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55) 이란 외무장관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케리 국무장관과 자리프 외무장관이 전 세계가 우려하던 이란 핵 문제를 푼 주역인 만큼 이들을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로 꼽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평화협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된 사례는 1973년 파리협정 당시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과 베트남의 레득토 전총리를 시작으로 5번에 달한다. 당시 레득토 전 총리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며 수상은 거부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던 미국 민주당 전직 상원의원(케리 장관)과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왕당파 지지자(자리프 장관)는 2013년 10월부터 1년9개월간 불꽃 튀는 협상을 하면서 서로 '존'과 '자바드'로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

로이터통신은 전임자들과 달리 영어에 능통하고 친화력 있는 자리프 장관이 항상 웃는 얼굴로 협상장

에 나타나면서 케리 장관과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종종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냉철하고도 교활한 경쟁상대였다. 수십년간 외교관계가 단절됐던 국가의 대표들답게 서로 명백히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협상장에서 연출된 사진을 보면 큰 키에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케리 장관은 작달막하면서 수수한 전통 의상을 입은 자리프 장관과 대비된다.

2013년 9월 취임한 자리프 장관은 미국 덴버대학 국제법 박사학위 소지자로 항상 웃는 얼굴로 '미스터 스마일'(Mr. Smile)로 불린다. 그는 2013년 발간한 회고록에 "외교를 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하지만, 적과 대화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썼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었던 케리 장관은 2013년 2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국무장관에 취임한 뒤 10월부터 협상을 진행하다 자전거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으나 '목발투혼'으로 협상을 타결시켰다.

yulcid@yna.co.kr

## 백악관, 이란 핵합의 의회 승인 위해 민주당 '표 단속' 나서

(워싱턴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백악관이 이란 핵합의안의 의회 승인을 위해 여당내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나섰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15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 참석한 스티브 이스라엘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부통령이 "핵합의안에서 군사적 옵션이 제외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부통령과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 이란 핵합의를 거부하면 이란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이번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45분이나 할애하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부통령과 회동 이후 일부 의원들은 이번 핵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빌 파스크웰 의원은 "(이란과 핵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현재 (이란 핵합의에 대한)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이란 핵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르면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면 의회는 60일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회는 이번 주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합의문과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이번 핵합의에 대한 불승인안을 내놓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상하원 전체 제적의 2/3가 이란 핵합의를 거부해야 하는데 상원 100명 가운데 34명의 표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은 46명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핵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충분한 민주당 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kirimi99@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리더로 일하며, 10년간 뉴스타 리얼티의 성공을 이끈 리더로서 (MBA)를 취득하고 전직 FENICONS-CAMBRIDGE 리얼티의 전직 상임대표로 근무하며, 10년 이상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에, 역, 한마루, 사출 실방만, 침실과 베란다 있어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분 안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방문은 매체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98688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n

# 올해 미국 경제, 본격적 회복 국면에 들어서나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까.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뚝 떨어지며 마이너스 성장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의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지난 10일 강연에서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올해 후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해,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가 오는 30일로 다가오자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민간경제연구소인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등은 올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최소 2%를 훌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

쩍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정확히 예측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2분기 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크로이코노믹스 어드바이저는 이보다 더 좋은 수치를 내놓았다. 4~6월 기업의 재고가 많이 늘어난 덕분에 2분기 성장률은 2.8%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심지어 3분기에도 미국 경제는 최소한 이와 비슷한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쳤다.

바클레이스의 전망은 더욱 장밋빛이다. 이 은행은 기업재고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 성장률을 당초 3.5% 성장에서 3.7%로 다시 높여 내놓았다.

이들의 분석은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발언과 맞물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지적했다.

gija007@yna.co.kr



미군 특수전 사령부가 15일 텍사스주에서 '제이드 헬름 15' 군사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주 방위군이 배스트롭 카운티의 캠프 스위프트에서 이동하고 있다

## 미 특수전 사령부, '제이드 헬름 15' 훈련 돌입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미군 특수전 사령부가 15일 군사 훈련인 '제이드 헬름 15'를 시작했다.

미국 언론은 특수전 사령부 소속 병력 1천200명이 텍사스 주의 주도인 오스틴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배스트롭 카운티의 캠프 스위프트를 비롯한 주 내 12개 카운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수전 사령부는 샌안토니오 인근 캠프 블리스에서 이뤄질 공수부대 훈련을 포함해 9월 15일까지 8주간 훈련을 전개한다.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와 중서부 7개 주에서 열리는 이번 여름 훈련은 미군 특수부대가 특정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저항군을 돕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지는 일종의 가상훈련이다.

지난 4월 훈련 계획을 발표할 때 유타 주와 함께 텍사스 주를 '적대적' 지역으로 지목하면서 느닷없는 음모론이 일었다.

이번 훈련에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네바다는 '호의적'인 지역, 뉴멕시코는 '적대적'으로 기운 지역, 애리조나는 '호의적'으로 기운 지역

이다.

보수 공화당의 아성인 텍사스 주 주민 일부는 비록 군사 훈련이나 자신의 거주지를 '적대적' 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싫어하는 농촌 지역의 극보수 공화당 지지자들이 '제이드 헬름 15' 훈련을 두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텍사스 주를 적으로 간주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기를 몰수하려고 이번 훈련을 진행한다고 거리낌없이 밝혔다.

극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이들의 눈에 비친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과 미국 국민보다 흑인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더 챙기는 사람, 공산주의자의 손에 양육된 사람이다.

미군이 훈련 개시를 이틀 앞둔 13일, 대부분의 군사 훈련이 주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라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라고 했음에도 엉뚱한 음모에 전염된 이들의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훈련 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전했다.

cany9900@yna.co.kr

## 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 휘발유값 연말 2달러 미만 될 듯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풀리면서 적지 않은 경제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N 머니는 미국의 휘발유 값이 연말께 1갤런(약 3.78ℓ)당 2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14일 예상했다.

유가 전문 단체인 '휘발유 가격 정보 서비스'의 수석 분석가인 톰 클로저는 "미국의 노동절인 9월 7일을 지나면 월평균 갤런당 10~15센트 정도 하락하다가 12월께 많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또는 그 미만

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대륙을 비롯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러시아, 이라크는 기록적인 원유 생산량을 기록 중이고, 유럽과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원유 수요를 억제한 탓에 현재 세계는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을 수개월째 겪고 있다고 CNN 머니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원유마저 가세하면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다르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지난달 OPEC에 서한을 보내 이란의 복귀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서한을 보면, 현재 하루에 2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원유 수출량을 하루 50만 배럴, 6개월 뒤에는 100만 배럴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CNN 머니는 미국의 제재가 한동안 이어지더라도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란산 원유가 국제유가를 낮출 것이고,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값 하락으로 직결될 것으로 점쳤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이란의 원유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내년께 국제 유가가 배럴당 5~15달러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cany9900@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Palmort, Larkin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 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rdish St. Southend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56

Beauty & Hair  
Monday - Friday  
9am - 10pm  
매주사 구할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해소되지 않는 '해킹 의혹' 3대 의문...구입 절차·시점 등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직전에 구입했을까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불법 인터넷·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역원대에 구입해 '불법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구입의 위법성과 구입 시점, 국내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사에서 원격도·감청이 가능한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해킹 프로그램 20회선 분량을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연구개발용이며 오직 북한 공작 대상자들에 대해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35개국 97개 정보수사기관에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

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특히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와 같이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다"고 사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우선 RCS 구입 자체에 위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0조의 2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왜 정보위에 알리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보안 사항이라는 점과 감청 설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통비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도 입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프로그램 구매 과정에서 국정원이 법규를 지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입 시점도 논란이다.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때가 2012년 1월과 7월로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5일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특히 총선과 대선 때 집중된 것은 어찌서인가.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원의) 북한 핑계는 국민을 깔보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밝힌 목적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거세다.

사용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메신저 '카카오톡' 및 국내 보안업체인 안랩이 개발한 모바일 백신 분석, 국내용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단말기를 직접 보내 분석을 의뢰한 점, '금천구 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꽃축제'·'떡볶이 맛집' 등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악성코드를 심은 점 등을 들어서다.

국정원은 내국인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논란에 "법을 어겨가며 우리 국민 대상으로 활용한 바 없고, 활용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가 불법도청 전담조직인 미림팀을 지난 1994~1998년 운영해 국내사찰을 벌였던 전력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통

한 감청 의혹이 확산되며 여야 공방도 가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당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새누리당을 향해 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침소봉대'로 일축하며 전날 국정원의 해명을 신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mith@news1.kr

## 야, 국정원 감청의혹 총공세...문·안 스마트폰 공개검사

(서울=뉴스1) 박태정, 박응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스마트폰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면에서 나서 실제 국정원이 구입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국정원 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이 문제를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우리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임기 때 국내용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했다면 목적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아닐까 의심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국회, 결산 국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정원 해킹국회 사찰근절 국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며 "긴급현안질문과 국조 추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분노와 불신 해소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국정원 불법 해킹프로그램 시연 및 악성코드 감염검사' 행사를 열어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휴대폰을 통해 사찰, 감시하고 있다면 국정원은 더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느라(수사당국) 수사착수조차 못한다면 국민들도 함께 해주길 호소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012년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은 지나가는 감기라면 이번 불법 해킹 프로그램 사건은 메르스를 한 100개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국정원은 컨트롤이 어려운 전 국민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해킹프로그램 시연과 감염 검사 행사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문 재인 대표가 직접 대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가 초빙돼 시연을 주도했다.

해커로 설정된 화면에는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떠서 안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고스란히 전송됐다.

감염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원격 작동시켜 취재진의 모습을 비추자 그대로 해커쪽 화면에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 대표는 "휴대폰 속 사진과 문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원격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 대표는 "원격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며 가져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날 시연에 사용된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구입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른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안전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의 감염검사 시연도 이뤄졌다. 두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악성코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문 대표는 "지금 악성코드가 없지만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권 대표는 "과거의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과거의 것을 보려면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 대표는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를 중앙 당에 설치하겠다"며 "걱정되는 분들이 오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tj@news1.kr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인정, 사찰 의혹 부인

(서울=뉴스1) 서상현, 김영신 기자 = 국가정보원이 14일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휴대폰 운영체제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RCS를)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약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다"며 사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정원은 "사이버공간은 사실상 전쟁터로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며 "국정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해야 했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위 차원에서 사찰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국정원을 직접 찾아 민간인'

사이버 사찰'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언론은 국정원이 'RCS'를 최초 구입할 때 '통화내역 모니터링 기능'을 쓸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 이후 수차례 유지·보수·관리하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RCS'의 용처가 '사이버 사찰'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정보위 전체회의 도중 중간 브리핑을 통해 전체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만간 국정원을 방문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간사는 "'RCS' 로그인 기록은 이탈리아 본사의 해킹팀에 3개월 정도 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설치된 것이 3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3개월 이전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국정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외 35개국 97개 정보수사기관이 'RCS'를 구입했으며 '해킹팀'이 오히려 해킹을 당해 거래내역이 공개됐다는 등의 외부 문의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dearpure@news1.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불릭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불릭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 11:30AM-12:00AM  
 10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40

**Parking Information**  
 1. 103 Prospect St. (near 103 St.)  
 2. 103 St. (near 103 St.)  
 3. 103 St. (near 103 St.)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칼라, 프렌치 젤,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두피 마사지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

# SORA SHISEIDO

소라 화장품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주름방지, 리프팅, 탄력, 등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특별히 잡티를 없애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얼티뮴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모델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 떡볶이 맛집 URL이 해킹 뺏?... 국정원 해킹정황 드러나

김광진 의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정황 드러나"... 맞춤형 '피싱 URL' 제작의뢰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형태의 '피싱 URL' 을 보내 감시대상이 링크에 접속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바이러스 설치 후 미리 지정된 '떡볶이 맛집' 블로그로 연결된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에 휴대폰 해킹을 의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킹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이 실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정보위, 국방위)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제작회사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육군 5163부대'가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에 카카오톡 해킹 기술 개발 진전 상황을 문의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졌다.

김광진 의원실이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 해킹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

정원은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인 'Remote Control System'을 감시대상자의 스마트폰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피싱URL' 제작을 최소 87회 이상 '해킹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최근 의뢰는 올해 6월 29일에 한 것으로 불과 보름 전까지도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감시활동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김광진 의원의 주장이다.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은 감시대상인 스마트폰, PC 등 통신기기에 바이러스프로그램을 침투시켜야 작동되는 방식으로 국정원은 주로 '피싱 URL' 주소를 통해 에이전트를 침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측은 "추정되는 구체적인 수법은 바이러스를 심어둔 '피싱 URL'을 감시대상에게 보내고 감시대상이 여기에 접속하면 감시대상 기기에 바이러스가 설치된다"며 "설치가 끝난

뒤 의심을 없애기 위해 미리 지정해둔 'Destination URL'에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싱 URL 수법을 사용하려면 감시대상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적합한 'Destination URL'을 감시대상별로 따로 제작해야 한다.

김 의원실은 "국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87회에 걸쳐 '해킹팀'에 피싱URL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까지도 누군가를 감시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개입 사건 이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를, 왜 감시하려고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brich@news1.kr

## 해외 한인들의 스마트폰도 국정원 감청 대상이었나?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국정원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IT기업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구입했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대북 또는 해외용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해외 한인들도 국정원의 감시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삼성fon, 아이폰 등 휴대폰 운영체제와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알씨에스(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알씨에스를)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약 20명 분의 알씨에스를 구입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및 각종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 볼 수 있는 이 알씨에스를 해외

한인들의 휴대폰 도감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추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문화일보는 지난 16일자 <국정원 카카오톡 해킹 기능없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해 온 한 재미 학자에 대해 스마트폰 해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 맞다, 아니더라고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A씨는 당시 상당한 대북 용의점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미국 국적을 갖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미국 잠수함 전문가가 해킹한 IP 명단에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개의 IP는 미국에 있다"고 대답해 실제로 미국 한인 과학자를 해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내에는 상당수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해온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한인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휴대폰 감청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editor@bostonkorea.com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wood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17TH - JULY 23RD, 2015**  
 ONLY FOR **H 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THE FRESHEST SEAFOOD SALE

Experience the **FRESHEST** SELECTION of QUALITY SEAFOOD

아침에 도착하는 싱싱한 수산물을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5.9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 SNAPPER** (홍도미) \$5.9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 MACKEREL PIKE** (냉동 꽁치) \$1.99/lb. (FROZEN)
- 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6.99/pkg. (8oz./pkg.) (FROZEN)
- OCTOPUS TAKO LEG** (냉동 문어 다리) \$17.99 (1.1 lbs./pkg.) (FROZEN)
-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7.9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 SKATE WING** (냉동 홍어) \$3.99/lb. (FROZEN)
- UNI** (성게알 (우니)) \$6.99 (2.1oz./pkg.) (FRI/SAT/SUN ONLY 17/18/19 ONLY)

### 종가집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CH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 蔘鷄湯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14.88/ea. (28.21oz.)

White Peach/White Nectarine (백도/백천도) \$1.9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ea. (FRI/SAT/SUN ONLY 17/18/19 ONLY)	Fuji Apple (후지 사과) \$0.99/lb.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1.9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29/lb. (FRI/SAT/SUN ONLY 17/18/19 ONLY)	Pork (돼지 등갈비) \$4.99/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lb. (FROZEN)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9.99/lb. (FRESH)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lb.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5.99/lb. (FROZEN)	MINATSU Buckwheat Noodles (삼표 메밀국수) \$4.99/3 lbs.	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2.99/16.7fl.oz.
NATURE'S Brown & Brown Sweet Rice (자연담은 현미반 현미찰쌀반) \$12.99/15 lbs. (MON - THU ONLY 20/21/22/23 ONLY)	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19.99/15 lbs. (MON - THU ONLY 20/21/22/23 ONLY)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 김 선물세트) \$8.99/0.7oz. x 10ea./box (MON - THU ONLY 20/21/22/23 ONLY)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2/3 ea./for (MON - THU ONLY 20/21/22/23 ONLY)	HAIOREUM Korean Style Cold Noodle (해오름 냉장 냉면) \$3.99/All Varieties/1.23 - 2.2 lbs. (주말시식 이벤트 FRI-SUN SAMPLING EVENT)	K TOWN Dukboki (케이타운 떡볶이) \$4.99/All Varieties/1.07 - 1.32 lbs.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갈뱅이 통조림) \$5.99/14.1oz.	HORMEL FOODS Spam 스팸 (All Varieties/12oz.) \$2/5 ea./for	POLAND SPRING Water (100% Natural Spring water) (폴란드 스프링 생수) \$3.99/500mL x 24ea./pkg.	KOMAX Ice Tank Box (코맥스 아이스 박스) \$27.99/Blue/20L - ea.	KOMAX Ice Tank Pack (코맥스 아이스 팩) \$3.49/190mm x 230mm x 43mm/ea.	Booby Dog Candy Shaped Pillow (부비 강아지 캔디 모양 베개) \$20.99/All Colors/21cm x 105cm/ea.

# 국방부 "기무사의 대선 전 감청장비 구입은 노후장비 교체"

군 대선 개입 정황 의혹에 해명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0월 감청장비를 구매했다는 주장과 관련 감청장비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감청장비를 구매했다고 국방부가 14일 해명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각각 개통령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청장비 노후화로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해 감청장비 교체현황을 국회 정보위에 2013년 1월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2012년 10월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모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군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

기했다.

송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2년 2월 국정원이 해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무사는 같은해 10월 감청장비를 각각 구입했다는 정황으로 미뤄 이들 장비를 구입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bin1981@news1.kr

## 국방부 "이탈리아 해킹팀 접촉, 우연한 만남일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부는 14일 국방부 소속 장교가 지난 3월 이탈리아의 업체 '해킹팀'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제 전시회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진 것 뿐 특별한 의도에서 이뤄진 접촉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소속 허모 중령 등 5명이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5 'GSA(Global Security Asia)' 전시회에 참가했다"며 이탈리아의 해킹팀 직원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탈리아 업체는 국정원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과 SNS를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업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행사장에서는 다수의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 해킹팀 관계자가 있었다"며 "서로 인적사항을 주고 받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 중령은 해킹팀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귀국 후 보고한 내용도 없다"며 "(해킹팀측) 이메일을 접수한 사실이나 메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행사장에서 의례적이고 우연한 만남을 가졌을 뿐 일각의 주장처럼 민간 사찰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접촉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허 중령의 메일 서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메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메일이 유실됐거나 단순 열람 뒤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특정 프로그램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허 중령이 해당 업체 관계자를 만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강조했다.

bin1981@news1.kr

## 송호창 "기무사, 2012년 감청장비 구매기록 확인"

"대선 당시...감청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의혹 생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4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 10월에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기기와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해외로부터 사들여와 최근 몇 년간 운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조사·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 송 의원은 "당시 2012년 2월 국정원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2012년 10월엔 기무사가 이런 감청장비를 구입해서 감청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의 장비들을 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질 않는 상황이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것(감청장비)을 기무사 국군 1363부대가 구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선통신 보안장비라든지 음성데이터를 감청하는 종합정보통신망 분석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인가를 제대로 받았다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이 기무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ptj@news1.kr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 한민구 국방 "기무사 등 카톡 해킹 프로그램 구입한 적 없다"

"국정원 카톡 해킹 프로그램 보도 보고 곧 바로 확인"

(서울=뉴스1) 조영빈, 유기림 기자 = 국방부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업체로부터 카카오톡 해킹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령부 등 군 당국에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사이버사령부나 기무사 등은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늘 아침 그 보도를 보고 사실확인을 했다"며 "국방부 예하 부대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다"며 완강하게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2월, 국정원은 국내의 한 민간업체를 끼고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이날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원 불법가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bin1981@news1.kr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해외자원개발 실적 '맹탕'...향후 5년간 14.5조 재정 악화 전망

감사원 "35.8조 투입된 유전개발, 2002~14년 석유 도입량이 총 지분 생산량 대비 0.4% 불과"

"석유·가스·광물 등 40개 주요 사업, 향후 수익성 전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제 자원 확보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련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3~6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사업 성과 분석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8개 나라의 1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도 이뤄졌다.

◇"자원 확보-외형 확대, 사업 목적 변질"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8개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당초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자원 보유국의 반출 통제 등으로 현재는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공사에서도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2002~14년 기간 해외에서의 유전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석유 물량은 총 지분 생산량(사업별 총생산량에 우리 기업의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생산량, 5억배럴) 대비 0.4%인 224만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4만배럴은 작년 석유 수입량의 0.2%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대부분 사업 초기 3차례의 시범도입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총 지분 생산량(9303만배럴)의 66.5%에 해당하는 6187만배럴의 천연가스 등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구매 계약을 맺은 생산 사업에 투자한 지분 물량을 도입량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즉, 가스공사는 도입 물량을 정해놓고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 생산량 대비 도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중 총 지분 생산액(116억6000만달러)의 31.5% 수준인 36억7000만달러 상당의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해외광구에 공동 투자한 국내 수요기업들에 공사의 지분물량을 판매한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선 "비상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지분 생산량(하루 생산 기준 29만9000배럴) 가운데 79%인 23만6000배럴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의 장기판매계약, 해당 국가의 법령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도입 가능물량은 하루 6만배럴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특히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석유공사의 교환거래(스왑) 반입 물량을 제외한다면 비상시 석유의 실제 도입 가능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4만9000배럴 수준이 된다"면서 "산업부는 스왑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란 기대만으로 비상시 확보 물량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현재까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만으론 본래 사업 목적인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등 3개 공사가 개발 또는 생산 중인 6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총 투자비 33조7000억원)을 상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투자비의 23.1%(7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23개 사업이 자원보유국의 생산 물량 국외 반출 통제,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국 앵커 광구와 페루의 사비아 페루, 중국 장자강(張家港), 호주 스프링필드 등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그 주요 사례로 예시했다.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 자구 노력 필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와 더불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감사도 벌였다.

재무적 성과 감사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석유공사 등 3개 공사의 40개 주요사업의 최근 7년간(2008~14년)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사업엔 작년 말까지 총 32조 원이 투자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3개 공사는 초기 투자비용 등 때문에 당초 '-3조1531억원'의 현금흐름을 예상했으나, 실제



론 9조7072억원이 더 소요된 '-12조8603억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산업부 등에서선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2011년~14년 초 고(高)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 실적은 계획이 크게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사업들의 향후 5년간(2015~19년) 현금흐름도 계획 대비 14조5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석은 국제유가가 2019년에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인 석유공사의 낙관적 전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과거 유가 등락 추이나 주요 사업의 실적 부진을 고려할 경우 예상 현금흐름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40개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기간 투자비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7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총 6641억원 투자, 향후 추가 투자비 6조7325억원)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재무계획에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항은 감사기간 중 조기에 반영·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부연

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정책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대책 역시 국내 기술력 및 인력 확보 부족, 이행관리 부진 및 실효성 미흡 등에 따라 '당초 목표한 바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48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自求)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의 자산 구조 조정에 활용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별 전략 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평가시스템과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 원세훈 변호인 "섭섭하지만 납득 가는 판결"

"선거법 전부 무죄라면 좋았을 것...다시 보석 신청 예정"

(서울=뉴스1) 김수환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섭섭하지만 납득 가는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핵심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혐의를 일부) 인

정했고 2심에서는 그걸 늘였는데 대법원이 다시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이 내려가면 다른 증거 나올지 모르니까 확정해서 갖고 오라는 것이고 아직 법률적으로 판단할 만큼 (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1심에서 인정한 것만 갖고 (정치개입, 대선개입을)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정지어 오란 거다"며 "대법원이 지혜롭게 심판을 피해갔다, 새로 2심에서 (확정)해서 다시 대법원에 또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냈다면 좋았을 텐데 미뤄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2심에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1심 판결보다 나왔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파기환송에 대해 예상은 몰라도 기대는 했다"며 "기대대로 됐는데 조금 모자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원 전원장이 신청한 보석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2심에 내려가면 가족들과 의논해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속 상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이동명 변호사

재판을 할 건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것인지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화요일에 원 전원장을 접견했다"며 "처음

구속될 때보다는 잘 지내고 있고 파기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대대로 됐다"고 원 전원장의 현재 상태도 전했다



abilityk1@news1.kr



#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Boston, MA 02134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Boston, MA 02134  
서울 or Udonchi III  
158 Cambridge St., Boston  
#17.575.8888  
SeoulFoodBar&Bar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민과 톰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날지렛 25분/이자렛 30분/파마 30분 부터  
디지털 120분 부터/개막인 때에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장학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인분교수'의 엽기적 해명... "제자 발전 위해 그랬다"

경찰, 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예정... 대학 측 "파면 후 명예훼손 소송"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진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한 대학교수 장모(52)씨가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자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앙경찰서 한 관계자는 16일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인정했고 잘못에 대해서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씨 일행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른바 '인분교수'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장씨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인분 교수 장모(52)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29)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 구속됐다.

당시 장씨의 지시를 받아 제자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제자 김모(29)씨와 장모(24)씨 2명과 함께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미약한 여제자 정모(2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장씨 일행은 2013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 일하던 장씨의 제자 A(29)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 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와 그 제자들의 범죄 사실을 보면 이들은 A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수시로 때리고 벌을 세우는 등 학대했다.

장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A씨에 대한 '쓰싸'(슬리퍼 따귀) 폭행을 공범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폭행장면을 아프리카TV 비공개방에서 서로 공유했다.

A씨가 폭행에 심하게 부상을 입자 더 이상 물리적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인분 교수 장모(52)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제자 A(29)씨. 장씨는 아프리카TV 비공개 방을 만들어 A씨를 실시간 감시하고 벌을 세우는 등 학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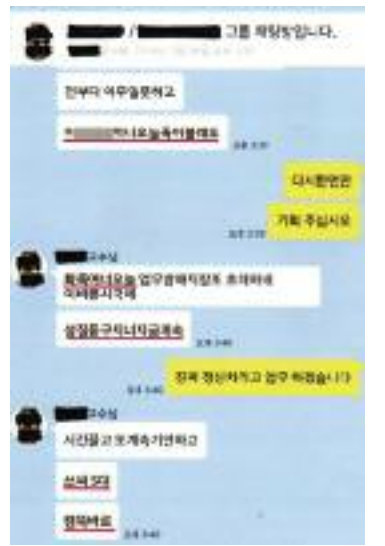
장씨 일행은 A씨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캡사이신보 다 2~3배 독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40여 차례에 걸쳐 뿌려 화상을 입혔다.

장씨는 심지어 "인분을 먹고 인간이 돼라", "포도주로 생각하고 먹어라"라는 말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

A씨가 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을 우려해 A씨를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A씨를 감시했다.

한편 장씨가 재직 중인 학교 측은 이 사회에 정씨에 대한 과면처분을 요구하고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52)씨와 수년간 장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제자 A(29)씨의 카카오톡 대화. 장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장씨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 수원 여대생 만취 상태로 끌려간 곳은 범인 회사 화장실

여대생 실종 33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  
40대 가장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혀 범행  
수사망 좁혀오자 '죽음'이라는 극단 선택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초반 여대생이 실종 33시간만에 온몸에 멍투성이만을 남긴 채 주검으로 돌아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여대생을 납치·살해한 가해자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결국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한 40대 가장의 그릇된 행위에서 초래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16일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과정 등을 재구성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범행 결심한 남성  
여대생 A(22)씨는 13일 남자친구 B씨를 만나 수원역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A씨와 B씨는 이날 주량을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

시간은 자정에 이르렀고 이들은 잠시 거리 공간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A씨는 올라오는 취기를 이기지 못해 먹었던 술과 음식을 토해내기도 했다. 잠시 후 A씨 일행은 잠이 들었다.

근처 회사를 다니던 40대 가장 윤모(46)씨는 술에 만취해 잠든 A씨 일행을 목격했다.

그리고 범행을 결심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A씨가 토했으니 물티슈를 사오라"며 B씨를 깨웠다.

B씨가 물티슈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윤씨는 곧장 A씨를 부축해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갔다. 윤씨는 그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회사로 차를 몰았다.

◇무자비한 폭행 끝 살인...경찰 수색  
윤씨는 A씨를 회사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다. 정황상 그는 이곳에서 A씨를 상대로 몸쓸 짓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을 차린 A씨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발견하고 저항했다. 하지만 신장이 160cm가 채 안 되는 아담한 체구의 A씨는 윤씨를 이겨낼 수 없었다.

윤씨는 저항하는 A씨를 마구 폭행했다. 건장한 남성의 무자비한 폭행을 이겨내지 못한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같은 시각 B씨는 A씨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B씨는 결국 14일 오전 1시18분경 경찰서를 찾아 A씨 실종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수색에 나섰고 실종 추정 장소 인근에서 A씨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차례로 발견,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했다.

◇여성 숨지자 범행은폐 후 좁혀오는 수사망에 극단선택

윤씨는 A씨가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이날 1시께 A씨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경찰과학수사대가 15일 수원에서 실종된 20대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서 사체를 수습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평택 진위천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은 진위배수지 인근 야산에 유기된 A(22·여·대학생)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폭행 과정에 벗겨진 A씨의 왼쪽 신발과 손거울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윤씨는 차를 몰고 회사 공사현장이 있었던 평택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A씨를 야산 배수로 옆 수풀에 유기했다. 범행을 들켜지 않기 위해 낙엽 등으로 시신을 덮어놓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윤씨는 이후 오전 3시께 용인시 기흥구 자택으로 가 범행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다시 시신을 유기한 곳을 찾아 현

장을 한차례 더 둘러봤다.

시간은 흘러 아침이 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 윤씨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채 잠적했다.

윤씨는 이후 강원도 원주로 향했다. 충북 충주를 거쳐 원주시 귀래면의 한 저수지에 도착했다. 아내와 자식이 있던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sun0701@news1.kr

휴람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등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성
유선 기본	<del>40만원</del> → 47만원	<del>40만원</del> → 59만원
유선 정진	<del>190만원</del> → 91만원	<del>198만원</del> → 103만원
유선VVP	<del>307만원</del> → 228만원	<del>320만원</del> → 240만원

SEOUL MEDICARE [명동사당 2층] 평일: 오후 5시 ~ 오후 9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로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등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년5천원 Free  
생리통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필기	비용	바깥개	비용	필기+바깥개	비용
4000코	200만원	2000코	400만원	7000코	700만원
6000코	300만원	2800코	400만원	9000코	600만원
		3600코	9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오스셀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셀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 이수경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석사학위  
- 대한치과임플란트학회  
- 대한치과미백학회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자주치로 상미브릴 어벤치로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최신 미용기기 사용  
1:1 전문관리와 프리미엄 품질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킨케어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진심 홈에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컨설팅 + 린프마사지

~~30만원~~ → **26만원**

진심 고풍마 케어  
- 고풍마 컨설팅 + 린프마사지

~~35만원~~ → **30만원**

나더프는 모든 지혈수 50% 할인  
에피끄 내이그는 모든 에피끄  
에피끄 10% 특별할인  
새미의 희곡 함께 진행하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임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미사하며 (요한 3:16)  
 담임목사: 우시창  
 ☎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2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79 • 603-264-6788 • [www.newkcc.org](http://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Church  
 401 King St. Boston, MA 02115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et.  
 New York Univ. M.D.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15    Tel: (617) 695-0275, (617) 695-2404  
[www.lovethefirstchurch.com](http://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공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8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보스턴새힘교회**  
 Boston New Hope Church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로 부르짖어, 그 사랑으로 받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같은, 사랑. 부름에 응답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구별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회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후 6:30, 목 오후 8: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http://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딴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평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평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report@bostonkorea.com](mailto:report@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드샷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을 전통사자직,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사랑을 담아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꽃길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이지나**  
이민 변호사



**곽보나**  
이민 변호사



**Yuqi Wu**  
중국인 케이스 매니저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 탐 브래디, 처벌 취소 안 하면 소송 불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하여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고 항소 중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NFL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브래디는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에 NFL을 고소할 방침이다.

브래디는 지난 6월 23일 뉴욕에 위치한 NFL 본사를 방문하여 11시간에 걸쳐 항소 심리를 가졌다. 브래디의 항소를 직접 주관한 로저 구델 NFL 총재를 비롯해 40여 명의 변호사와 증인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구델 총재가 항소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늦어도 패트리어츠의 2015 시즌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하는 7월 30일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항소 결과를 보면 구델은 약 5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항소 결과를 발표했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가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풋볼의 공기 압력을 낮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혐의로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벌을 받았다. 특히 NFL 조사 과정

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NFL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델 총재가 브래디의 4경기 출장 정지를 2경기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수 그렉 하다가 가정폭력 혐의로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으나 최근 항소를 통해 4경기 출장 정지로 줄어든 점도 브래디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ABC 뉴스는 브래디가 완전한 면죄부를 얻지 못하면 NFL을 고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래디에 대한 처벌이 1경기 출장 정지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항소 과정에서 브래디에게 힘을 보탠 NFL 선수노조 역시 NFL과 법정 싸움을 벌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FL 선수노조는 브래디 사례를 구델 총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기회로 삼고 있다. 브래디가 NFL을 고소한다면 NFL의 징계 시스템이 불공정하여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NFL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NFL이 선수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탐 브래디가 NFL 본사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한은 NFL과 선수노조 사이에 맺어져 있는 단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단체 협약이 맺어져 있는 당사자 간의 결정을 뒤집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초에 바이킹스의 러닝백 애드리안 피터슨이 NFL을 상대

로 소송에서 승리했고, 2012년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라인베커 조나단 빌마가 역시 NFL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브래디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는

미네소타 주에 있는 연방 법원이나 패트리어츠가 연고로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 [MLB] 기록 쏟아낸 '괴물' 트라웃, 올스타전 최초 MVP 2연패

'올스타전 첫 타석' 사이클링 히트도 달성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현역 최고의 타자'로 통하는 마이크 트라웃(24·LA 에인절스)이 수많은 진기록을 쏟아내면서 올스타전의 주인공이 됐다.

트라웃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오키호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5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 3타수 1홈런 1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트라웃의 활약에 힘입어 아메리칸리그는 내셔널리그에 6-3으로 승리했다. 트라웃은 2014 올스타전에 이어 2년 연속 MVP에 선정됐다.

올해 올스타전은 통산 86번째 대회였다. 긴 역사 속에 올스타전 MVP를 2년 연속 차지한 선수는 트라웃뿐이다. 또 정규시즌 MVP

(2014년)를 차지한 뒤 이어진 올스타전에서 MVP를 차지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

트라웃은 윌리 메이스(2회), 스티브 가비(2회), 개리 카터(2회), 칼 립켄 주니어(2회) 등에 이어 5번째로 2회 이상 올스타전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됐다. 아직 20대 초반이기에,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트라웃은 '올스타전 첫 타석' 사이클링 히트 기록도 달성했다. 2012년 첫 타석에서는 안타, 2013년에는 2루타, 2014년에는 3루타를 쳤다. 그리고 올해 첫 타석에서 트라웃은 1점 홈런을 쏴아 올려 올스타전 첫 타석 사이클링 히트라는 진기록을 완성시켰다.

특히 이날은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이었다. 트라웃은 1989년 보 잭슨 이후 처음으로 올스타전에서 선두타자 홈런을 친 선수가 됐다.

201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트라웃은 괴물로 통한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MVP 투표에서 2위에 그쳤던 그는 2014년 아메리칸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이 2015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MVP에 선정됐다

리그 통산 10번째로 만장일치 MVP에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5번째 시즌을 뛰고

있는 트라웃은 통산 타율 0.306 124홈런 362타점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해도 88경기에서 타율 0.312

26홈런 44타점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yjra@news1.kr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원안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질환, 안저질환, 안압측정, 안검열, 안구검사, 안경도수 측정 등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프트/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 & 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박열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유과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업그레이드)	안면거상술 (목 포함)	메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 & 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로복,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배상음원인 가능
- 말하지 않아도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루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튠즈가 채용 (스트리밍)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후퍼채용
- 핸드스토폴 기본장착

한국 가요  
포토로  
성경 흥망막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특찬송가 포함)

**\$79**  
(가요5200곡 + 성경특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 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9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75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안전하고 좋은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명의 매출실적 / 60여 지역 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8-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b>Restaurant</b>  \$47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q.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Bedford, MA</b>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52-861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5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q.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d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럴 sq., 하버드 sq 졸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b>Worcester, MA</b> 6552 sq. 38대 주차 공간 Una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 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0	<b>Restaurant</b> \$120,000 Boston, MA Beer & 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52-8842
<b>Beauty Service</b> \$100,000 Nex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52-8615	<b>Full Plant Cleaner</b>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7년, 지역 방값수준 평가하는 조건에 맞추어 알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56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니** OPPA'S SNACKS  
www.oppasnack.com

주소: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전화: 617-202-3808

365일 캐주얼  
예약 관례합니다.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28 July 17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95

새로 변신한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 소라화장품 Shisheido & 벨라 네일숍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617-515-6010

Welcome, 한국 방송 3시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10 TV의 27인치 화면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5.1로 방송도 있고 4K는 시세이도 무한대 시청

방송3시와 케이블 합병 계약  
한국방송 3시 시청도

7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617.955.9112  
자랑 판매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0년 넘게 시세이도 화장품만을 취급해 온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소라화장품이 더 화려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개장되었다.

새로운 모습의 소라화장품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네일 샵 'Bella Nail' 이다.

김소라 사장은 "세대가 빨리 변화되어가고 향상되어 가듯이 비즈니스도 새로운 패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화장품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다" 며 "네일 서비스를 통해 손님과 더 직접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소라화장품 안에 속해있는 네일 샵 'Bella Nail' 종류가 다양해 갈라, 프렌치 젤, 네일 아트 등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서비스 또한 네일 내외한 각질 제거, 두피 마사지, 등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도 받을 수 있다.

벨라 네일 'Bella Nail' 의 매력은 살균 없는 청결적인 서비스를 위해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소독 기계를 통해 깔끔한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사장은 '소독 도구 또한 재활용 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매번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다'

강조하였다. 하루에 사용되는 소독 도구만 자그마치 50개 이상이라고 알린바 있다.

소라화장품의 손님들 또한 다양하게 지역의 학생들로부터 60대가 넘는 여성들까지 한인 여성 외 외국 여성들까지도 꾸준히 소라화장품을 드나들고 있다. 김 사장은 동양 여성들의 피부를 부러워하는 미국 여성들은 시세이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단골 고객'의 절반 이상은 한국 여성이 아닌 미국 여성들이라고 말하였다. 김 사장은 아울러 '단골 고객들은 김 사장이 20년전 매장을 처음 개업하고부터 찾아와 자신(김 사장)과 같이 늙어간 손님들' 이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김 사장은 시세이도의 최고 제품 얼티문(ULTIMUNE)을 강력히 추천했다. 계속해서 김 사장은 "얼티문은 노화방지, 수분공급, 주름방지, 리프팅, 탄력, 등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며 특별히 잡티를 없애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고 언급하였다.

얼티문은 피부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피부의 방어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외부 유해환경과 스트레스로 약해진 피부를 되찾게 해주는 시세이도의 신제품이다. 여름계절 따가운 햇빛으로 손상이 된 피부에 있

어 유연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는 권유해 볼만한 제품이다. 김 사장은 얼티문은 남녀공용 제품이며 스킨을 바른 후 사용을 할 것을 권했다.

새롭게 개장한 소라화장품의 위치는 전과 똑같은 캠브리지 포터 스퀘어 역 옆 레슬리 대학 건물 안에 있다.

소라화장품 및 벨라 네일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반까지며 일요일 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ll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시, 달남곡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ll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당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A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99-8201
뉴잉글랜드클럽프렌치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머사추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행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우살렐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곡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75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일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남건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옥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터플러워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영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만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레딩에 있는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603-401-1581

페디큐어 전문가 구함. 상당 후 렌트 or 이익 분배 가능. T. 617-331-1101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 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세탁소 셔츠 홀세일합니다. (산코사 기계 사용) T. 617-631-4915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Amherst 세계대학 근처 세탁소 팝니다. (16년간 운영, 주인 은퇴) (영주권 신청 가능) T. 413-549-3612

캠브리지 하버드대 근처 샌드위치 가게 판매, 매매가 \$150,000 (주인 은퇴) T. 978-609-8752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져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져 합니다. T. 501-753-1691

**N[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져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췌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 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 송강호 · 유아인 주연 '사도'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사도'가 오는 9월 관객들을 만난다.

14일 배급사 쇼박스에서 빠르면 영화 '사도'(감독 이준익)는 오는 9월 개봉된다. '사도'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 영조와 단 한 순간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사도, 역사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리는 영화다.

이와 관련 네이버 영화서비스를 통해 최초 공개된 '사도'의 티저 예고편은 아들을 버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한 아버지 영조로 분한 송강호와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아들 세자 사도 역의 유아인의 강렬한 대립으로 눈길을 끌며 2015년 최고의 연기 격돌을 예고한다.

예고편 속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라는 카피는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함께 공개된 티

저 포스터는 하얀 상복 차림으로 무릎 꿇은 채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도와 붉고 화려한 용포와 강인한 표정 뒤에 슬픔을 숨긴 군주 영조 그리고 배경에 놓인 뒤주의 모습은 두 사람의 어긋난 운명을 암시한다.

한편 '사도'는 지난 2005년 영화 '왕의 남자'로 1230만 흥행신화를 기록한 이준익 감독이 10년 만에 선택한 정통사극이기도 하다.

aluem\_chang@news1.kr



## '어셈블리' 명품연기와 명대사의 향연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어셈블리'가 첫 회부터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15일 밤 10시 첫 방송된 KBS2 새 수목드라마 '어셈블리'(극본 정현민 / 연출 황인혁 최윤석) 1회는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실재 없이 이어지는 명대사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배우 정재영, 송윤아, 옥택연은 청장년 세대가 겪는 현실의 압박감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데뷔 20년 만에 드라마에 첫 출연한 정재영은 드장부터 남달랐다. 그의 눈빛과 표정은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며 명대사와 시너지를 일으켜 몰입도를 높였다.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뒤 진상필(정재영 분)이 판사에게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은 해고노동자의 절절함이 느껴지며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최인경 역의 송윤아는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고자 하나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고민하는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거액을 제시하며 불법으

로 공천을 받으려는 고객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임금체불과 쌓이는 청구서였다. 결국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백도현(장현성 분)에게 전략공천을 부탁하는 모습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김규환 역의 옥택연은 단 한마디의 대사로 오포세대를 넘어 칠포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암울한 현실을 공감있게 그려냈다. "해고가 뭐지나 알아?"라며 일갈하는 정재영에게 분노를 억누르며 절실한 눈빛으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빌어먹을 해고 한번 당해보는게 우리 소원이라고요"라 말하는 모습은 이 시대 청년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한편 '어셈블리'는 무식해서 용감하고, 단순해서 정의로운 용접공 출신 국회의원 진상필이 '진상남'에서 카리스마 '진심남'으로 탈바꿈해가는 유쾌한 성장 드라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회의 세세한 이면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실감 넘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한국 정치의 단면을 가감 없이 그려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 '해투' 샘김 "美 요리학교 전체수석"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셰프 샘김이 미국 요리학교 전체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샘김은 16일 밤 11시15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300만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가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샘김은 "미국 요리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 그때 당시 1년 6개월 학비가 5만불이었다"며 "일을 해서 차곡차곡 7만불을 벌었다. 은행이 맡기지 않고 모아뒀다가 현금으로 학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샘김은 "학교 내 역사상 최초로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부자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웃픈 일화를 공개했다.

샘김은 아르바이트로 바쁜 탓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다는 MC들의 반응에 출석도 완벽했고, 전체수석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심영순, 이연복, 샘김, 이욱정 PD, 정엽이 출연한 7월 여름스페셜 야간매점2탄 '셰프 특집 2부'로 꾸며졌다.

lee1220@news1.kr

## '컴백' 에이핑크, 새 앨범 미리듣기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걸그룹 에이핑크가 롤링뮤직을 공개했다.

14일 정오 에이핑크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이번 롤링뮤직에는 정규 2집 '핑크 메모리'(PINK MEMORY) 전곡 미리듣기가 들어 있다.

이번 정규 2집 '핑크 메모리' 타이틀 곡인 '리멤버'(Remember)는 경쾌한 리듬과 빈티지한 사운드의 완벽한 조화로 지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줄 신나는 느낌의 여름 댄스곡이다.

특히 'NoNoNo', 'LUV' 등 에이핑크와 남다른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던 신사동호랭이와 범이냥이의 작품으로 또 한 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앨범마다 작사로 참



여하며 감각적인 가사를 표현해냈던 리더 박초롱이 다시 한번 'Dejavu' 라는 곡 작업에 참여했으며, 처음으로 작사에도 참여한 에이핑크 막내 오하영의 'What A Boy Wants' 라는 곡 역시 눈길을 끈다.

또 올해 에이핑크의 데뷔 4주년 기념 팬송으로, 정은지 작곡곡으로 알려진 '새끼손가락'도 포함돼 있다.

그 외에도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중독적인 스윙풍의 댄스곡 'Perfume', 여름밤 무드

를 더해줄 '끌려', 어쿠스틱의 향연 '꽃잎점', 익살스러운 가사가 특징인 댄스곡 'What A Boy Wants', 귀에 감기는 멜로디 'I DO' 그리고 에이핑크 발라드의 계보를 이을 '신기하죠' 까지 에이핑크의 다채로운 풍성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에이핑크는 오는 16일 자정 음원공개를 하고, 17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한다.

kun1112@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7월 6일 ~ 7월 12일

##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5.0%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8%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20.8%
4	KBS2	해피선데이	17.1%
5	KBS1	KBS9시뉴스	17.0%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5.9%
7	MBC	무한도전	14.9%
8	KBS1	전국노래자랑	14.5%
9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3.5%
10	KBS1	인간극장	12.5%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6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7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8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9	KBS1	인간극장 2015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 내머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SHAKE IT	씨스타
02	IF YOU	BIGBANG
03	PARTY	소녀시대
04	링마벨 (Ring My Bell)	걸스데이
05	와리가리	혁오 (hyukoh)
06	심쿵해 (Heart Attack)	AOA
07	맨정신	BIGBANG
08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Feat. Young K)	백아연
09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10	Oasis (Feat. ZICO)	Crush

## 숫자 퍼즐 (Sudoku)

						2		3
		3		7			8	
		9	3	4			1	
4		5						7
		7	5	6	4	3		
	8					1		4
	4			1	3	5		
	5			8		7		
7		2						

7월 19일 - 7월 25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b></p> <p>●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진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니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 애정: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써 풀어야 하겠습니까. 84, 72, 60, 48, 36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1일 주의.</p>	<p><b>소띠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b></p> <p>●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 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평화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21, 25일 주의.</p>	<p><b>범띠   기다리면서 찬스를 잡아야</b></p> <p>● 운수: 전진보다는 잠시 후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면서 찬스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 금전: 금전 운은 매일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서야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르겠습니까.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보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토끼띠   쌓아둔 덕을 바탕으로</b></p> <p>● 운수: 지금껏 쌓아둔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되었습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르겠습니까. ● 애정: 현명한 판단 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용띠   넓고 큰마음으로</b></p> <p>● 운수: 지나친 근심걱정이 병을 카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고통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쁨이 마련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주입니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실랑실랑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뱀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b></p> <p>● 운수: 하는 일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후원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 애정: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하주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말띠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b></p> <p>●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운 통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대단하게 여겼던 이성으로부터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 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양띠   책임을 다하도록</b></p> <p>● 운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신에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 금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고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b>원숭이띠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어야</b></p> <p>● 운수: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 금전: 큰돈을 투자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p>
<p><b>닭띠   행운이 기대되는</b></p> <p>● 운수: 행운이 기대됩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나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군요. ● 금전: 돈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4일 길일. 23, 25일 주의.</p>	<p><b>개띠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b></p> <p>●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5일 길일. 23, 24일 주의.</p>	<p><b>돼지띠   능력이 돋보이고</b></p> <p>●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과 생각이 일치되어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p>

# 유재석의 선택, 왜 FNC였을까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인 유재석이 마침내 5년 만에 소속사를 찾았다. 그간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해왔던 데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 이후 한창 사업 확장 중인 대형 기획사 FNC 엔터테인먼트에 새 동지를 틀었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강호동과 신동엽, 전현무 등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방송인들이 일찍이 SM C&C라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에 정착했고, 최근에는 방송인 유병재와 안영미 등이 YG 엔터테인먼트와 동시 전속계약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예능계 대어인 유재석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소속사들의 영입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돈이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당시의 비전과 부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형돈과 MBC '무한도전'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 만큼 유재석 역시 이 같은 비전을 높이 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유재석의 FNC 전속계약 체결로 현재 예능 시장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FNC 역시 유재석의 영입으로 음반 및 공연 제작은 물론 드라마 제작에서 예능 제작까지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한층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작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가 만났을 때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만큼,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유재석과 FNC의 전속계약 체결이 윈윈(Win-Win)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유재석이 새롭게 동지를 둔 FNC는 FT아일랜드, 씨엔블루, 주니엘, AOA, 엔플라잉 등 뮤지션을 비롯해 배우 이다해, 이동건, 박광현, 조재윤, 정우, 성혁, 윤진서, 김민서, 정해인, 김소영, 곽동연, 그리고 방송인 송은이, 정형돈, 이국주, 문세윤 등이 소속돼 있다.

aluem\_chang@news1.kr

그런 유재석은 왜 FNC를 선택했을까. 이에 대해 FNC 측은 16일 뉴스1스포츠에 "회사 직원들도 모를 만큼 극비리에 진행됐다"면서 "유재석과 정형돈, 송은이 등 절친한 동료들과 일하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형돈 역시 지난달 16일 F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FNC는 정형

# '마이리틀텔레비전' 김영만 등장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종이나라 아저씨 김영만이 출연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2일 진행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인터넷 생방송에는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원장이 출연했다.

김영만은 1988년 KBS1 'TV 유치원 하나둘셋'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종이 접기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종이접기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는 색종이 종이나라 모델을 하기도 했다.

"눈물난다"고 반응했다. 김영만은 "나도 눈물이 난다. 딸이 시집 갈 때도 안 울었는데"라며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했다.

'마이리틀텔레비전' 김영만 생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마이리틀텔레비전' 김영만, 나도 눈물 난다", "'마이리틀텔레비전' 김영만, 종이나라 생각나네", "'마이리틀텔레비전' 김영만, 종이나라 아저씨 옛날 생각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마이리틀텔레비전'에는 김영만을 비롯해 백종원, 김구라, 레이디제인, 솔지가 출연했다.

이날 네티즌들은 김영만을 반기며

ppbn@news1.kr



# 나영석PD 신작 '신서유기', 강호동·이승기 출연 확정

(서울=뉴스1) 이경남 기자 = 나영석의 tvN 새 프로그램 '신서유기'가 출연진 확정을 지었다.

16일 tvN에 따르면 나영석 PD가 올 가을 선보이게 될 인터넷 콘텐츠 '신서유기(가제)'에는 강호동과 이승

기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또 '1박2일' 멤버였던 이수근, 은지원과 출연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신서유기'는 TV 방송이 아닌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새로운 형태로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호동의 케이블 진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나영석 PDhk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CA & NY) • BOAHB • GD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SBS | 상류사회       |
| 6  | KBS | 가족을 지켜라    |
| 7  | MBC | 딱 너 같은 딸   |
| 8  | MBC | 화정         |
| 9  | KBS | 인간극장 2015  |
| 10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밤을 걷는 선비     |
| 2 | SBS    | 심야식당         |
| 3 | CJ E&M | 무비 스토커       |
| 4 | KBS    | 에블라와 싸우는 사람들 |
| 5 | KBS    | 비밀스러운 금의 세계  |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경성학교 | 박보영/엄지원 |
| 2 | 간신   | 주지훈/김강우 |

### '밤을 걷는 선비' 매혹적 뱀파이어 판타지에 빠질 시간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밤을 걷는 선비'가 트렌디한 판타지 사극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밤을 걷는 선비'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성준 PD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 부담이 있었다. 조선판 판타지 뱀파이어 사극이다"며 "기존 사극과 다른 점이 여러가지 있다. 만화에서는 없는 인물도 추가됐고 기존에 없던 멜로라인도 많이 변형하려고 했다. 상투적이고 식상한 소재인 뱀파이어 물이 재밌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밤을 걷는 선비'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성준 PD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 부담이 있었다. 조선판 판타지 뱀파이어 사극이다"며 "기존 사극과 다른 점이 여러가지 있다. 만화에서는 없는 인물도

추가됐고 기존에 없던 멜로라인도 많이 변형하려고 했다. 상투적이고 식상한 소재인 뱀파이어 물이 재밌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비는 남장 여자 양선 역을 맡았다. 자신의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상큼발랄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PD는 이유비 캐스팅에 대해 "젊고 어리고 밝고 명량한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다"며 딱 맞는 배우가 맡았다고 칭찬했다. 귀 역의 이수혁 역시 흡혈귀라는 배역에 맞는 비주얼과 포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성준 PD는 "보시다시피 귀처럼 생겼다. 연기도 훌륭하게 해주고 있다. 지상파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독특한 이미지를 잘 만들고 있다.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훌륭하다"고 밝혔다.

'밤을 걷는 선비'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각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들을 섭외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었으며 언제나 매력적인 뱀파이어 소재는 충분히 시청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수년 전 이성준 PD가 연출한 '해를 품은 달'이 큰 성공을 거뒀듯 '밤을 걷는 선비' 역시 기대작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

'밤을 걷는 선비'는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첫사랑과 모시던 세자를 잃고 뱀파이어가 된 선비 성열이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에 얽힌 사건을 파헤치던 중 남장 책재 양선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오는 8일 밤 10시 첫 방송.

ppbn@news1.kr

### "여학생들 하나 둘 사라진다"...미스터리 영화 '경성학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 배우 엄지원과 박보영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경성학교'의 줄거리에 관심이 쏠린다.

'경성학교'는 제목처럼 1938년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성학교에서는 "우등생은 도쿄로 전학시켜 주겠다"며 학생들을 엄격한 규율에 맞춰 생활하게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경성학교 여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주란(박보영 분)이 경성학

교로 전학을 오게 되고, 주란은 경성학교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주란은 사라진 소녀들을 목격하지만 교장(엄지원 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수학생 선발에만 힘쓴다.

이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줄거리는 실화는 아니다. 다만 제작사 측은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내용으로 관객들을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각오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 \$29.99

(정상가: \$39.99)

**7월 특별 할인**

7월31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7월 시청료 무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로 결제하면 한국방송 콘텐츠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Play, 콘텐츠로 인해 일부 TBO 내 손전화에 일부 TBO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엘리트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95 MI
- 3. Belmont 엘리트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라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통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박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박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프 매케:**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물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6회

친정 조카 'Baby Shower'에 다녀와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오랜만에 뉴욕에 다녀왔다. 아이들이 어려서 남편따라 나들이 삼아 뉴욕에 있는 한국 백화점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사들이는 재미도 있어 자주 다녀오곤 했었다. 뉴욕 플러싱에 친하게 지내는 선배 언니가 살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 게다. 그러다 10여 년 전 선배 언니가 롱아일랜드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언니도 그랬지만, 나 역시 대학을 앞둔 아이들 공부에 신경을 쓰는 때라 바쁘게 지낸 시절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일이 있어 함께 가더라도 뉴욕 플러싱에서 롱아일랜드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매번 생각하다가가는 접근 했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몇은 가끔 뉴욕의 한인 찜질방을 찾아 보스톤에서 운전으로 뉴욕에 다녀오곤 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는 찜질방을 썩 즐기지 않으니 그 역시도 좋겠다 싶다가는 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온 친정 조카가 뉴욕에서 살고 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 여름방학 때마다 미국에 놀러오곤 했었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공부를 위해 한 2년을 왔다 갔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플룻을 전공

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사는 조카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조카라 늘 어린 나이인 줄 알았는데 한국 나이로 32살이나 되었다고 해 깜짝 놀라고 말았다. 조카사위는 40이 다 되어가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훗칠한 키에 점잖고 멋스러운 멋쟁이다. 처음 조카에게서 소개를 받았을 때부터 내심 마음에 흡족했던 조카사위다. 물론, 처이모부인 남편하고도 서로 미국 문화가 잘 맞아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인연이 되어 서로 만나더니 조카가 학교에서 일을 하니 방학 때마다 2년 여를 서로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초겨울 한국에서 친지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다.

그리고 조카사위가 뉴욕 맨해튼에서 직장을 다니고 살고 있어 신혼집은 자연스럽게 뉴욕 맨해튼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결혼해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가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조카의

나이도 그러하거나와 조카사위의 나이를 보아 아이를 빨리 가진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그리고 임신 초에는 입덧이 아주 심하다기에 무엇이 먹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총각김치'가 먹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정엄마(친정 언니) 대신 정성들여 총각김치를 만들어 주었다.

조카의 예정일이 8월 말이라기에 친정엄마(친정 막내 언니)와 아빠(형부)는 8월 중순 경에 딸아이를 보러 온다고 한다. 조카 덕분에 친정 언니와 형부를 미국에서 만날 수 있어 나 역시도 기다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정일을 앞두고 아기 엄마와 아기의 순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베이비 샤워(Baby Shower)'를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조카사위가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어 조카와 조카사위를 보러 뉴욕에 다녀온 것이다. 뉴욕의 맨해튼에 도착하니 심장이 쿵쾅거린다. 30년 전 뉴욕에서 2년을 지냈던 맨해튼 거리에서 잠시 빛바랜 '내 추억'을 꺼내 보았다.

그렇게 토요일에 있을 '베이비 샤워' 참석을 위해 금요일 오후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가서야 저녁 불빛이 화려한 맨해튼 42가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다. 참으로 색다른 느낌의 도시임은 분명했다. 여기저기 높이 솟은 화려한 불빛의 빌딩 숲 사이에서 바쁜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잠시 뉴욕커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조카의 집으로 향하며 나는 보스톤니안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조카와 조카사위를 만나니 더욱 즐겁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조카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훌쩍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카의 시누이가 준비해주는 '베이비 샤워'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 장소는 다름 아닌 뉴욕 맨해튼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오고 브루클린 브리지 아래에서 유유히 흐르는 'East River'가 보이는 조카시누이의 콘도미늄의 옥상에서 열리게 되었다. 참으로 멋진 곳을 풍경 삼아 누렸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조카의 시어른과 시누이 부부 그리고 조카 시댁 친지들과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니 35여 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조카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수 준비한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손길에 어찌나 감사하던지 내가 조카보다 더 행복했던 날이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익혀라. 그리고 잊어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창 여름이다. 고온다습이란 말이 보스톤에선 어울린다. 더우면서도 눅진하다. 화창한 날은 잦은데, 그닥 상쾌한 맛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가 질푸른 여름인데, 마음은 썩 푸르지 않다. 진한 햇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날카로운 각을 만든다만, 그늘이 더위를 온전히 덮지 못하는 거다. 목형균 시인이다. 칠월이 한해를 겪었다. 칠월엔 아내의 생일이 있다. 그나마 내가 즐겁다.

계절의 반이 접힌다  
폭염 속으로 무성하게 피어난 잎새도 기울면  
중년의 머리카락처럼  
단풍들겠지  
견딜 수 없는 햇살  
굽게 접힌 마음 한 자락  
폭우 속으로 쓸려간다.

(목형균, 7월 중에서)  
바둑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정석을 외워라. 그리고 잊어라'. 문제는 알려진 정석만해도 3만 개가 넘는단다. 그러니 몇 년을 열공하지 않으면 다 익힐 수는 없다. 뒤이어 따르는 문장도 난감하다. 익혔으면 잊으라 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제대로 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일 게다. 혹독한 훈련방법일 것인데, 프로바둑 기사가 되는 길은 고되고 험난한 듯 하다. 하긴 프로기사棋士가 되는 길만 어렵겠는가. 어느 분야건 프로가 되는 건 만만하지 않다. 같은 뜻일 듯 싶은데, 성철스님도 한 말씀 했던 게 기억에 남아 있다. '책을 볼태워라.' 다 읽었으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일 게다. 익혔다면, 책에 연연하지 말라는 경구일터. 말씀은 쉬운듯 한데, 뜻은 무척 깊

다. 외우고 익히는 건 어려워도 잊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다.  
노자가 말했다.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 직역을 한다면 '공을 이루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자의 표현을 표절한다. 학이불거學而不居로 해야겠다. 배우고 익혔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내 나름 해석을 가져다 붙인다. (문법이 맞네 시비하지 마시라. 이건 엉터리 표절이다.) 한국의 저명한 소설가가 곤경에 처했다. 남의 문장과 소설의 한 단락을 뭉텅이로 표절했다. 그는 여러번의 필사로 소설과 문장을 공부했다고 들었다. 그럴듯한 문장과 소설을 베껴 써가면서 훈련했다는 거다. 현대,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고, 낱것을 상 위에 올려 놓은 모양새가 되었다. 외우기는 했다만, 잊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표절이 도둑질이라 했는데, 말은 섬짓하다. 풍문으로 들었다. 고등학교적 이야기이다.

누구는 영어사전을 하루에 한장씩 단어를 찾아 외우고, 외운 페이지는 뜯어서 입 속에 넣어 삼켰다 했다. 사전 종이를 매일 먹어가며 장기복용했던 거다. 아주 엽기적인 이야기 일터인데, 그에게는 성스런 의식이었으리라. 영어단어를 제법 외웠을 만큼 날이 흘렀다. 몇달이 지났던 거다. 그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인데, 오직 한 단어만 떠오르라더라. 'goat' (염소).  
글 중에서 작가가 도용했다는 표현이 그럴듯하다. '기쁨을 아는 몸' 이란다. 익혀서 내 것을 만들어 한없이 기쁨 적에 몸도 마음처럼 가벼울 게다. 그도 이제는 잊을 건 잊어야 하고, 제 것이 아닌 것은 털어내야 한다. '기쁨을 아는 몸' 이 되었을 아내의 생일은 익혀야 한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내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마라 (시편 103:2, 공동번역)



북미 최대의 한류 컨벤션 x 콘서트!  
 NY 8월 8일

Prudential Center, Newark NJ

• AOA • Girls' Generation

• Teen Top • VIXX

• and more special guests!

티켓 절찬 판매중! [KCONUSA.com](http://KCONUSA.com)

# KCON

ALL THINGS HALLYU

Presented by  
**TOYOTA**  
 Let's Go Places

부스 모집중 Contact: 212 574 4414

PRODUCED BY: CJ E&M, Mnet  
 PRESENTED BY: TOYOTA  
 TECHNOLOGY SPONSORS: verizon, LG  
 OFFICIAL SPONSORS: IOPE, CJ SHOPPING, CJmall, KUMHO TIRE, bibigo, DRAMAFEVER, com2us, ASIANA AIRLINES, TOUS les JOURS, 4DX, McDonald's, NONGSHI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3. 유럽인들의 정착촌 건설 (4)

북동부 식민지 정착민과의 첫 전쟁 (계속)  
1970년대 초 코네티컷 주의 레드야드 (Ledyard) 인디언 보호구역에 퍼쿼어트족 출신 인디언이 딱 한 명 살고 있었다. Elizabeth George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였는데 1973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연방정부에 의한 부족국가 지위 인정이 취소되었는데 그녀의 손자인 Richard Arthur Hayward의 노력으로 1983년에 다시 연방정부인정을 받아냈다. 그는 대단한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1992년에 인디언보호구역안에 서반구에서 가장 큰 카지노(Foxwood Casino Resort)를 건설하였다.

### 필립왕 전쟁

필립왕이라고도 불리는 와파노아그 부족의 추장 메타코멧 (Metacomet)은 유럽으로부터 정착민들이 계속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이들 유럽인들이 더 많은 토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인디언 부족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1675년 전쟁을 일으키기로 생각하여 정착민 소유의 한 농가를 약탈하였다. 당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민은 8만 명에 달한 반면에 와파노아그 부족의 인구는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럽인들에게는 적수가 될 수 없었던 와파

노아그 부족의 완패로 끝났었다. 이 전쟁에서도 모히건 부족등 일부 인디언 부족은 영국군과 연합하여 와파노아그 부족과 싸웠다. 이 전쟁 중 추장인 필립왕은 기도하는 인디언(Praying Indian;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럽식 생활방식을 받아들인 인디언)인 앨더만(John Alderman)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그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은 따로 잘려져서 20년간 전시되었다고 한다. 1678년에 끝난 이 전쟁으로 영국 연합군 측은 약 600명, 와파노아그 부족은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쟁에서 진 와파노아그 부족 생존자 중 수백 명은 전쟁이 끝난 뒤에 처형되었고 추장의 부인과 아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와파노아그 인디언들은 버뮤다 섬의 노예로 팔려갔다.

### 뉴 네덜란드와의 전쟁

현재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와 코네티컷을 아우르는 뉴욕권역은 네덜란드인들이 1600년대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진출하였다. 초기의 20여 년 동안에는 큰 충돌 없이 네덜란드인들과 그 지역의 레나페(lenape) 인디언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피 교역 등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키프트(Willem Kieft)가 정착촌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었다. 키프트는 주민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43년 파보니아 인디언 마을을 급습하여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2년 이상 지속된 키프트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약 2000명의 인디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의 뉴 암스테르담 인구가 채 1000명이 안됐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1645년 인디언들과 네덜란드인들 간에 회복된 평화는 다시 깨져 1659년부터 1663년까지 레나페부족의 한 지파인 에소푸스(Esoopus)와 네덜란드 식민지 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네덜란드 식민지는 인근의 원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 온 데다 수십 년간 지속된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세계무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경쟁에서 네덜란드가 영국에 밀림에 따라 1664년에는 뉴암스테르담을 영국 측에 양도하는 등 북미 대륙에서의 식민지 경영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 스웨덴도 식민지 건설 시도

북미 대륙에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외에 스웨덴도 있었다. 스웨덴은 1638년 오늘날 델라웨어 주 최대 도시인 윌밍턴이 서 있는 자리에 당시 스웨덴 여왕의 이름을 딴 크리티나(Christina) 요새 건설을 시작으로 델라웨어 강을 따라 뉴 스웨덴으로 불리는 식민지 개

척 사업을 벌였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북쪽으로 펜실베이니아까지 이르기도 하였으나 인근 뉴저지와 뉴욕에 이미 상당한 세력을 구축한 뉴 네덜란드와의 경쟁에 밀려 1655년에 뉴 네덜란드에게 흡수 통합되었다.

### 4.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 비버 전쟁(1640-1701)

흔히 이로쿼이 연합(Iroquois Confederacy)으로 불리는 부족은 1600년대 초부터 허드슨 강을 따라 뉴욕 내륙으로 진출한 네덜란드인과의 야생동물 모피교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 그런데 총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다 보니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로쿼이 인디언들은 전통적인 자신의 사냥터를 벗어나 오대호 주변 깊숙이 다른 인디언들의 사냥터를 침범하게 됨으로써 부족 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교역 대상 모피 중에는 비버 모피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 갈등을 '비버 전쟁(Beaver Wars)' 이라고 부른다. 이로쿼이 연합은 그들의 교역파트너인 네덜란드로부터 총포 등을 지원 받은 반면에 주로 알곤킨어족에 속하는 상대 인디언들은 그들의 교역 파트너인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프랑스 이로쿼이 전쟁(French and Iroquois Wars)'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9 송무관의 창시자 노병직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에 실린 그의 증언을 보면 노병직은 이원국을 무도인으로 인정하는 것마저도 주저한다.

“1955년 청도관 고문 겸 명예관장으로 영입된 최홍희 장관은 고위 장성들과 사회 저명 인사들을 청도관 고문 또는 이사들로 끌어들이 청도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국 씨가 최 장관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원국 씨가 1950년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는 말은 6.25때 북괴에 부역을 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비굴한 잔꾀이다. 이원국 씨는 46년 부터 50년 6.25동란까지 4년간 당수도에 있었을 뿐이다. 그 후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국내 태권도계와 관계를 맺지 못했고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과거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언행은 무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마치 협잡꾼이나 일삼는 작태라고 생각한다.”

노병직의 송무관 창설과 도장 개관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개념의 최초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연유가 있다.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가지다. 그러나 그 여러가지가 허위라기 보다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귀향하여 여기저기에서 가르친 것이 정확한 기록없이 구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노병직 자신이 밝힌 송무관 창설 비화는 1936년 일본으

로 유학가서 배운 가라테를 방학을 맞아 집으로 와서 당시 일제 식민지하의 의기소침한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가르치다가, 1944년 완전히 귀향하여 친구들과 후배들의 간청에 의하여 지도하기로 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개성시 중앙부의 자남동 소재 관덕정이 좋겠다는 의견에 허가서를 내었다(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가라테를 가르친다니까 금방 허가가 나왔다고 했다). 그 해 3월 시작할 때는 약 10여명의 관원들이 있다가 젊은이들이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면서 관원들이 없어서 교습을 중단하고 다시 1946년 5월에 송무관을 재발족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1948년 11월 9일자에는 창립1주년 기념대회를 송도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알려진 송무관의 공식적인 개관은 1947년 11월경임을 알 수 있다.127)

또 다른 대목의 이원국과의 애증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해방 후 자신이 개성에서 도장을 차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의 이원국이 제자(손덕성, 남태희)들과 개성을 방문하여 '송무관'이란 명칭을 지어주었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전쟁과 휴전으로 돌아

갈 수 없는 땅이 된 자신의 고향, 그래서 그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관세를 확장하면서, 6.25 동란이 일어난 후 이원국이 없는 청도관을 많이 지원하여 재건하였다고 한다.

그는 제4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했고, 국제태권도연맹의 부총재도 역임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태권도의 보급, 발전의 공로로 2014년 9월 국민훈장(모란장) 받았다.

125) 생존한 사람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한 진실들이 나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6) 노병직의 주장이 맞다면 그의 도장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개념의 최초의 도장이다. 다른 기록에는 1944년 3월 개성시 동흥동에 개관했다는 기록도 있다. (태권도 저널, 2014년 9월 24일, 서성원) 현재 무도계에서 인정하는 현대적 개념의 최초의 도장은 청도관의 이원국이 1944년 9월 15일에 서대문구 옥천동에서 개관한 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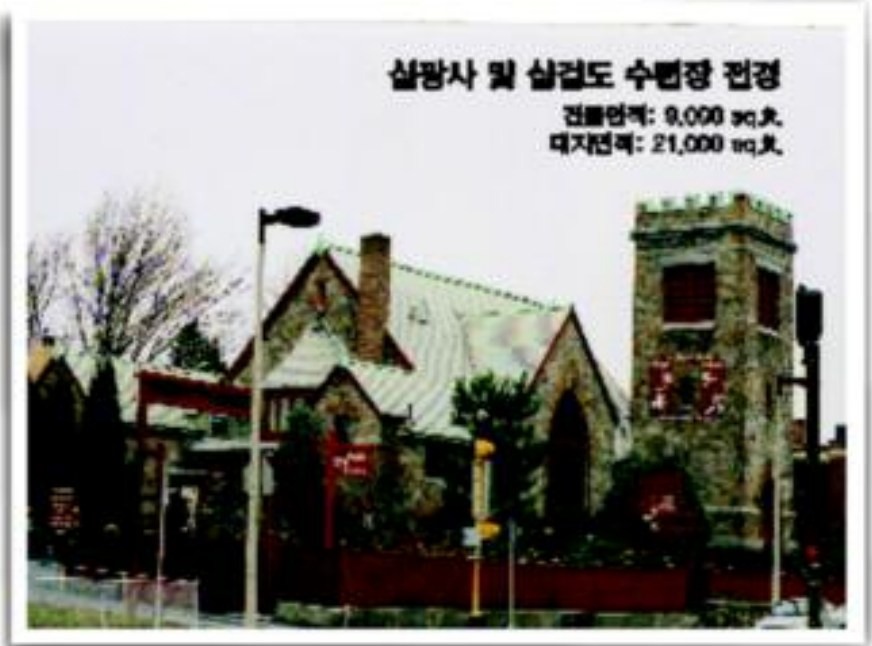
127) '관 중심으로 본 태권도형성사' 허인욱(2008)에서 재인용

# 브라이트 소재 저렴한 기숙사

## 무술 연마와 기숙생활 함께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20분 예배후 조식, 각자 학과 및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각자의 종교 생활(가족과, 친구들과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950**  
조식, 석식 및 수련비 월\$120 포함



단기숙박 가능: 3개월(월\$1,200), 6개월(월\$1,100)

- 주차 가능 (월 \$100 주차비)
- 실검도 18개월 수련후 단종 수여
-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무료 참선
- 전화 연락후 상시 방문 가능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픈 하우스)
- 전화번호: 617.787.1506



**종교와 관련없이 수련 가능**  
(불교 신앙 생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련비: 성인 월\$120, 어린이 월\$75  
성인18개월, 어린이36개월 수련후 단종 수여

**수련 시간**

어린이: 화,목요일 오후 5-6시(심법)  
수요일 오후 5-6시(검법)  
토요일 오전 9-10시(검법)

성인: 월-목요일 오후 6-7시30분(검법, 심법)  
토요일 오전 10-12시(검법, 심법)

**617.787.1506**

203 Chestnut Hill Ave, Boston, MA 02135  
www.shimgumdo.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구(口)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義)에 이르고 입(口)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 로마서 10:10



사람의 입(口)이 가장 바쁘다. 요즘 새정치연합 야당하는 사람들의 입이 많이 바쁘다.

15일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 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심의하는 자리에 이종걸 원내대표만 보일뿐 새정치민주연합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았단다.

이 원내대표와 강 정책위원장이 이 추경예상안을 놓고 서로 언쟁을 벌인 뒤 서로 엇갈리는 출석이 되풀이 된단다.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시급한 추경예산안을 앞에 두고 개인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공당(公黨)을 다스릴 자질이 문제될 수도 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표와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제의하자 “대선행보”를 한다며 최고위원들이 불참행위를 집단화했는가 하면 당혁신위에서 만든 당혁신안을 결의하기 위해 열린 당무회의에서는 느닷없는 막말로 징계를 받은 정청래최고위원에 대해 재재심(再再審)을 요구하는 안건을 우선 통과시켰다.

“혁신하겠다”더니 당내에서조차 “반(反)혁신하느냐는 불평이 쏟아지기도.

대통령과 여당원내대표가 총돌하고 여권 전체가 계파간 알력과 분열로 아우성이던 지난달, 야당이 인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각종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호남지역에서는 생가지도 않은 신당(新黨)보다 지지율이 뒤지기도...

국민이 새정치연합을 대안(代案) 세력으로 못 믿는다는 뜻.

야권 내 신당(新黨)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정치 민주 연합소속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16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탈당

선언을 해 신당 움직임에 불을 붙인 셈.

박 전지사는 “당의 혁신 작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새정치 민주 연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지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구민주계 인사.

새정치 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 박준선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과 만찬회동을 하며 “대한(代案) 정당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한다면 신당창당의 신호탄이다”고 합의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4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선원 5명 가운데 3명의 귀순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극악 무도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6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이 얼마 전 바다에서 표류된 (북한)주민들 가운데서 3명을 강제 억류하는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은 공화국 국민(국민)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조선은 “만약 괴뢰패당이 진실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우선 실현을 바란다면, 애당초 우린 주민들을 억류하고 귀순공작을 벌인 것 과 같은 비인도 주의적 행위를 감해하지 말았어야 했고 5명 전원을 다 돌려보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한국정부가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족과 갈라놓으려고 악랄한 귀순 공작놀음을 벌려놓다 못해 3명을 강제억류시켰다”면서 “(이같은) 극악무도한 반(反)인륜적 행위는 그들이 떠드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우선 실’이 한갓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여실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혈투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구(口): 사람의 입을 일컫지만 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대변한다. 해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 성경 66권 전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 요한복음 1:1,2

이 “말씀”을 중국 성경은 ‘話語’로 표시한다. 이 話자에도 ‘口’가 둘 붙어있고 또 語가 나란히 붙어있다.

풀어보면 “말씀의 뜻인 언(言)에 그 “말씀을 하는 혀(舌:설)”에 입 구(口)가 나란히 붙어있고 “나(吾:오)와 말씀이 관계가 있다” 해서 또 口가 붙어있는 것.

口가 합하여 된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口’만독 글자 구절만도 “출애굽기 4:10”부터 요한계시록 14:5까지 모두 25회나 언급돼 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 니이다” : Moses said to the Lord, “O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in th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 출애굽기 4:10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s; they are Blameless “ 요한계시록 14:5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 “If anyone loves Me he

will obey My teaching.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He who does not love Me will not obey My teaching. These words you hear are not My own: They belong to the Father who sent Me” -요한복음 14: 23,24.

이와 같이 성경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 대변하신다. 따라서 성경의 신, 구약이 모든 하나님 입(口)에서 나온 말씀인데 구약에선 선지자들 (prophets)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또는 사도들(Apostles)의 입(口)을 통해 전달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 “All this I have spoken while still with you.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 요한복음 14:25,26

특히 요한복음 14:23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부자(父子)가 믿는 자들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 함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거(同居) 하심을 확실히 하신 것. 까닭에 성경 말씀은 구절(句節)마다 진리라는 것.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대변하는 짧은 구(句)이기도 하다.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h3>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h3>	
<p>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p> <p><b>\$160 per week/ \$12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8.</b></p>	<p><b>Monday to Friday 8:30 to 11:00 AM</b></p> <p><b>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b></p>
<h3>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h3>	
<p>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p> <p><b>\$270 per week/ \$20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8</b></p>	<p><b>Monday to Friday 9:00 to 2:00 PM</b></p> <p>Breaks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p> <p><b>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b></p>
<h3>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h3>	
<p>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p> <p>Our workshops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p> <p>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a href="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a></p>	<p><b>Classes (Grades 1-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uasive Writing Workshop (1-4)</li> <li>• Literary Analysis (5 to 8)</li> <li>• Expository Analysis (9 to 12)</li> <li>• Advanced Essay Writing (High School)</li> <li>• Tutoring: SAT, ACT, GRE, SSAT</li> </ul>

엔티바 enjoy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궁금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 7월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7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7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0)

#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 확인

월가에 있는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주위에 서 만날 수 있는 재정설계사가 개별적인 주식(회사 주식)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매니저도 유명한 회사를 선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많은 개별적인 회사 투자보다는 간단한 분산투자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주식에 55%, 외국 선진국에 10%, 개발 도상국에 5%, 그리고 미국 채권에 30%를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8.7%입니다. 참고로 매년 7.2% 수익률로 10년 동안 투자하면 50만 불이 100만 불로 두 배 불어납니다.

많은 투자자는 은연중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투자하기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네(4)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투자종목의 숫자가 열 손가락 이상인가?**

“투자종목이 몇 개라야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다”라는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종목이 15개 이상이라면 종목끼리 중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종목은 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종목, 채권 시장에 전체에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외국 회사 전체에 투자하는 종목, 합이 세(3) 종목이면 기본적인 분산투자가 형성된 것입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가?**

투자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성 어뉴어티는 매년 7% 인컴을 보장한다”라는 대답은 투자종목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파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어뉴어티를 팔 때마다 수수료로 10% 받는다면 어뉴어티를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보장한다는 7% 인컴이 투자자가 생각하는 7%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종목마다 투자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특정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이유가 어느 재정잡지 “뜨거운 탑 10 뮤추얼 펀드”의 기사를 보고 투자했거나, 방송 매체의 주식전문가, 주위의 친지, 등의 조언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어떠한 뚜렷한 이유로 종목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히 투자 대박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하는 종목 하나하나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데, 즉 필요 때문에 종목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투자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대부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만 집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의 투자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투자하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알고 있는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경비가 분명히 부과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부과되는 모든 투자경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투자자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합법적으로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 어뉴어티, 생명보험, 등에는 숨어있는 경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과되는 모든 경비를 정확히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1차 만기 코앞에 둔 대출자 수백만명

[주택 담보 대출]

‘주택 순자산 신용 한도 대출’(HELOC·이하 ‘주택 담보대출’)의 1차 만기를 앞둔 대출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담보대출 뒤 약 10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1차 만기가 오면 원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갑자기 높아진다. 페이먼트 부담이 급증하면 모기지 연체에 따른 차압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차 만기가 도래한 대출자 가운데 이미 연체가 발생하는 등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증가 추세다. 금융 당국은 주택 담보대출 만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측에 1차 만기를 앞둔 대출자들을 지원토록 격려해 나섰다.

**■ 이자 납부 기간 끝나는 대출자 수백만명**

주택 담보대출 페이먼트 급등에 따른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시장황기동안 대량 발급된 주택 담보대출의 1차 만기를 코앞에 둔 대출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만기는 주택 담보대출 뒤 약 10년 후로 정해진다.

이 기간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없이 이자만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납부하는

페이먼트 금액이 최소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곧 만기가 되면 원금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먼트 급등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택 담보대출 만기로 인한 페이먼트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출 은행들도 하여금 만기 연장 등 대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적극 유도 중이다.

따라서 만약 1차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페이먼트 인상에 대한 걱정에 앞서 은행 측과 적극 연락해 지원 방안을 알아보면 좋다.

**■ 신규 담보 대출 신청**

1차 만기가 다가오면 그동안 사용된 주택 담보 대출액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대출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합쳐진 페이먼트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원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기지 시장 정보 업체 HSH의 키스 김빙어 대표에 따르면 신규 담보 대출을 통해 원금 납부 부담 제거, 만기 연장, 추가 대출금 확보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액 10만달러 중

약 3만달러를 사용한 대출자의 경우 신규 담보대출(10만달러)을 재발급 받으면서 3만달러를 대출금으로 포함시킨다.

7만달러의 담보 대출액이 새로 발생하고 원금 납부 대상인 3만달러의 사용액은 다시 10년간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신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시세가 큰 폭으로 회복돼 주택 순자산이 충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폭락한 주택 시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주택 소유주는 많은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기 힘들다.

기존 1차 모기지 대출액이 많거나 기타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도 주택의 순자산이 낮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 대출 불가능하다.

10년 전보다 담보 대출 이자율이 크게 오른 점도 신규 담보 대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고정 이자율로 전환**

주택 담보 대출자들은 시중 이자율 변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부분 변동 이자율로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내린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관할하는 단기 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변동된다.

만약 현재 전망대로 FRB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린다면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 상승도 확실시되고 페이먼트 상승에 대한 부담도 피하기 힘들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주택 담보 대출자들에게 이자율 고정 이자율이 유리한 시기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더라도 향후 이자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고정 이자율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빙어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고정 이자율은 이미 약 6.2% 수준이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http://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 명왕성에 우주탐색선이 가다!

요즘 NASA(미항공우주국)는 물론 전 세계의 우주과학자들이 흥분상태다. New Horizons(새 지평선)라는 이름의 탐색선이 초당 10 마일 비행속도로 지난 9년 반을 날아 명왕성에 근접, 자료수집을 하고 지구 전송에 일단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4일 오전 7시 49분, 최근접거리인 7,800 마일 거리를 지나며 찍은 명왕성 사진은 놀랄 만큼 자세하고, 선명하였다. 국민학교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태양을 순환하는 위성은 순차적으로 수성(Mercury), 금성(Venus), 지구(Earth), 화성(Mars), 목성(Jupiter), 토성(Saturn), 천왕성(Uranus), 해왕성(Neptune), 그리고 가장 외곽에 멀리 명왕성(Pluto)이다. 가장 빠르다는 빛(photon, 광자, 光子)이 태양으로부터 지구, 즉 우리 눈동자까지 500 초 가량 걸린다는 기억도 새롭게 하고, 그런데 명왕성까지 가려면 4시간 반쯤 걸린다고 한다. 65마일 속도의 차로 6200년 걸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다. 먼데다 그 크기도 달의 1/3 정도로 1930년에야 겨우 발견되었다. 그 후 8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태양 순환궤도의 1/3도

못 돌만큼, 멀리서 크게 돈다. 지구는 그간 85번이나 돌았지만.

그런데 달을 5개가 거느린 명왕성은 위성 자격미달로 판정되어, 2006년 난쟁이위성으로 격하되었다. 즉 해왕성 외곽에 산재한 10여 만 개 떠돌이 물체 중의 하나로 분류된 것이다. 이 물체들은 45억년 전 태양계가 생성될 때 위성의 크기로 합쳐지지 못하고 남은 얼음, 기체, 먼지가 뭉친 덩어리로 각기 태양을 순환하고 있다. 이들의 태양 순환 영역을 Kuiper Belt라고 한다. 1990년 이후 우주천체 연구에 총아가 된 허블 망원경으로도 명왕성은 그 크기조차 확실치 않아 우주과학자들은 명왕성과 그 달들의 신비로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실 명왕성을 제외한 다른 8개의 태양계 위성은 이미 탐색 연구가 되었기에 더욱 간절하였으나, 7억불의 소요비용으로 다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드디어 2006년 1월 19일, 478 kg의 피아노 크기 New Horizons이 명왕성을 향한 비행을 시작하였다. 탐색연구의 목적인 명왕성과 달의 지질과 성분, 표면의 화학성분, 대

기권 분석, 그리고 Kuiper Belt 내의 물체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카메라와 기타 장비가 실려 있다. Kuiper Belt 내의 물체들은 태양계 생성 당시부터 존재하였기에, 태양계 생성에 관한 비밀을 캐내려는 것도 한 목표이다. 물론 액체연료 추진제와 여러 장비를 작동기 위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소형 핵발전기는 필수라 하겠다. NASA는 속속 전송되어 오는 자료의 늪 속에 빠져있다. 방금 발표된 사진 중 하나는 11000 피트 높이의 1억년 된 산으로 표면은 질소 등으로 덮혀 있다고 한다. 이토록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놀라움 뿐이다. New Horizons는 앞으로 수년간 연료와 발전능력이 소진할 때까지, 명왕성을 지나, Kuiper Belt 깊숙히 통과하면서 수 없는 새 정보를 전송할 것이다.

New Horizons에 실려 보낸 그러나 과학적 측정과는 무관한 물품 중 두개만 소개한다. 명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그러나 지금은 타계한 Tombaugh의 유골(재) 1 온즈가 그 하나다. Tombaugh의 딸은 “발견 당시 명왕성은 아주 미미한 점 하나였다. 이

번 탐색으로 명왕성의 대기권과 달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라며, 기쁨을 표하였다. 다른 물품으로는 1991년 미국 우정국에서 발행한 29센트 우표 한장이다. 당시 우정국에서 9개 위성사진과 탐색선 이름이 표기된 위성우표시리즈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명왕성 우표만 탐색선 이름 대신 “아직 탐험 안됨” 이라는 주를 달아 발행되었다. 바로 이 우표 한장이 30억 마일 장거리 배달을 가면서 “아직 탐험 안됨” 이라는 이제는 틀린 소식을 전하게 되는 아이러니도 생겼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의 “왜” 라는 호기심이 그 시작이다.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넓고 넓은 우주의 수많은 신비로움이 “왜” 에 근거한 과학으로 풀릴 날 있을까? 1930년 고등학교 학력에 오늘날 기준으론 초라하기 짝 없는 13인치 망원경으로 명왕성을 발견한 Tombaugh가 85년 후의 현재를 상상치 못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형사법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사연을 참 많이 접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법 절차상의 권리를 좀 더 알고 계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법한 사연도 보게 됩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민법 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형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아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연들을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미국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그리고 형사 사건 진행시 중요한 이민법에 대해 연속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 형법상의 중범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국 형법의 사법권은 각 범죄에 따라 연방 사법권과 각 주의 사법권으로 나뉩니다. 만약 피의자가 연방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에서 그 형사건에 대해 담당하여 진행하지만, 그 피의자가 체포된 내용이 해당 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주의 형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11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던 피의자 Zacarias Moussoui는 연방형법상의 테러범죄로 인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명 미식축구 스타

OJ Simpson은 그의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OJ Simpson의 형사 혐의는 캘리포니아 주 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법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 및 각 주의 형법 적용에 따라 같은 상황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당하는 범죄의 분류와 형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뉴저지 주의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주거 침입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 (Indictable Offense)가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정식 기소 범죄”로 불리는 것은, 이 피의자의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배심원단(Grand Jury)에게 보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배심원단은 먼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이 피의자를 정식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 검찰은 더 이상 형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식 기소 범죄” 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며, 그 중대함과 심각성에 따라 네 단계의 급으로 나뉩니다. 살인, 강간 등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1급에 해당하며, 2급은 유괴, 성범죄, 마약, 방화, 주거 침입 등의 범죄, 3급은 일부 강도, 마약 등의 범죄, 4급은 스토킹, 위조 등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가장 중대한 1급 정식 기소 범죄의 경우 10-20년형의 징역 또는 종신형과 최대 \$ 200,000까지의 벌금이 징벌될 수 있으며, 2급은 5-10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0까지의 벌금, 3급은 3-5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 그리고 4급 정식 기소 범죄형은 18개월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 10,000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정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비시민권자의 경우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미국 이민 신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각별히 고려하여 형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 외에, 뉴저지 주 형법에는 타 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Disorderly Person Offences와 더 낮은 단계인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분류에 해당하

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있다면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 말소(Expungement)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에 관한 내용이나 형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www.pospay24.com



# Pr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롬렛(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롬렛+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롬렛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19,000

섬머빌 지역 런드롬렛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롬렛,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8주단위, 8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9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통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 8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6년 이상의 감외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정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3~8.21  
(8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